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 노인학습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서 병 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

임 민 주

2015

碩士學位論文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임 민 주

指導教授 서 병 진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12月 日

임민주의 佛教社會福祉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14年 12月 日

委員長

趙唐鎬



委員

金一暉



委員

이민주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제 1 절 이론의 성립배경 .....	6
1. 평생교육의 개념 .....	6
2.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	10
1) 평생교육 프로그램 .....	10
2) 학습동아리 .....	12
3. 성공적 노화 .....	14
제 2 절 고령화와 평생교육 .....	20
제 3 절 사회복지와 종교 .....	25
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 .....	36
제 3 장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	57
제 1 절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	57
1.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	57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	59
제 2 절 노인학습동아리의 현황 .....	70

<b>제 4 장 연구 방법</b> .....	<b>73</b>
제 1 절 연구 대상과 방법 .....	73
1. 연구 대상 .....	73
2. 조사 방법 .....	74
3. 자료 수집 .....	74
4. 자료 분석 .....	74
제 2 절 측정도구 .....	76
1. 신뢰성과 타당도 .....	76
2. 설문지 구성 .....	77
<b>제 5 장 연구결과와 분석</b> .....	<b>78</b>
제 1 절 연구결과와 분석 .....	80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80
2.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 .....	84
3. 동아리 활동 특성 .....	86
4. 성공적 노화의 특성 .....	88
제 2 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	98
<b>제 6 장 결 론</b> .....	<b>101</b>
<b>참고문헌</b> .....	<b>103</b>
<b>ABSTRACT</b> .....	<b>110</b>
<b>부록(설문지)</b> .....	<b>113</b>

## 표 차 례

<표 1>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생학습 참여율 .....	4
<표 2>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 .....	19
<표 3> 장래인구추계 .....	21
<표 4> 연령계층별 인구추이 및 노령화 지수 추이 .....	22
<표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교 현황 .....	32
<표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삶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도 .....	33
<표 7> 한국의 종교 현황 .....	34
<표 8> 종교별 법인현황(2011) .....	35
<표 9> 기관유형별 노인교육기관의 적합성 : 중년층 .....	51
<표10>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57
<표11>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률 및 교육 참여 빈도 .....	63
<표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	64
<표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	65
<표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	66
<표15> 노인들의 선호 교육방법 .....	68
<표16> 동아리 유형 분류 .....	70
<표17> 설문 구성요인 .....	77
<표18> 연구대상자 구성 .....	80
<표19> 연구대상자 교육수준 .....	81
<표20> 연구대상자 종교 .....	82
<표21> 연구대상자 동거형태 .....	82

<표22> 연구대상자 경제상태 .....	83
<표23> 연구대상자 건강상태 .....	83
<표24>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 .....	85
<표25> 동아리 활동 특성 .....	87
<표26> 성공적 노화 차이 T-검증 .....	88
<표27> 학습동아리 활동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	90
<표28> 동아리 참여자의 성별 .....	91
<표29> 동아리 참여자의 동거형태 .....	92
<표30> 동아리 참여자의 연령대 .....	92
<표31> 동아리 참여자의 최종학력 .....	93
<표32> 동아리 참여자의 종교 .....	94
<표33> 동아리 참여자의 건강상태 .....	95
<표34> 동아리 참여자의 주관적 경제 만족도 .....	96
<표35> 동아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필요성 .....	96
<표36> 동아리 참여자의 학습동아리 필요성 인식 .....	97
<표37> 동아리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 .....	97

## 그 립 차 례

<그림 1>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추이 .....	23
<그림 2> 종교단체별 종립 요양·의료기관 현황 .....	29
<그림 3> 불교사회복지시설 증가추이와 종교별 현황 비교 .....	29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평생교육기능의 주체인 노인복지관의 평생학습프로그램과 하위에 생성된 학습 동아리를 살펴보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노인학습동아리와 병행하여 운영될 때, 매우 효과적인 성공적 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서울시 은평구 내 노인복지관 2곳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은 성공적 노화 특성, 동아리 활동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는데 4가지 영역의 3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노인복지관의 학습자들은 노인학습동아리의 필요성에 대해 78.8%가 동아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아리 참여 경험에 있는 경우 9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고, 동아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거나 적절한 동아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유사한 수치로 높았다.

학습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4가지 범주 중 적극적인 인생참여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습동아리와 병행하여 운영될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검증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효과적인 성공적 노화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노인교육기관의 현장 운영자와 담당자들은 다양한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노인학습동아리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학습동아리 개설과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노인 세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운영자, 담당자 또는 강사들은 **적절한 수준의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노인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종교 및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육시설의 프로그램에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통합인프라가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부 차원에서 노인동아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노인학습동아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검증의 결과를 통하여 현장의 노인학습동아리 운영에 방향을 제시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복지관의 노인학습동아리 뿐만 아니라 종교 및 민간 기관 등의 노인 학습동아리 형성과 운영에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 한다.

- 키워드 : 노인문제, 노인 학습동아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노인 복지관, 성공적 노화, 고령화, 저출산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노년층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많은 선진 사회가 보여준 바와 같이 한국 사회는 국민 소득의 증대와 교육수준의 향상,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로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가 등 사회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현격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로 이어져, 식자들은 ‘늘어가는 사회’, ‘광속(光速)의 고령화’, ‘고령화쇼크’, ‘고령화 시한폭탄’, ‘고령화 재앙’, ‘시니어 붐(boom)’등 다양한 수식어로 인구고령화의 위력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 학계에서도 또한 인구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것에는 더 이상의 이견이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이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은 불투명해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의 보건·의료 등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유발시킨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치매·뇌졸중 등으로 수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유병 기간의 장기화는 연쇄적으로 노인 의료수요의 급증을 불러 일으켜 건강 보험 및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sup>1)</sup>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총

---

1) 서병진, (2010), p.284.

5,424,667명으로 전체인구(2010년 기준 47,990,761명)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UN의 고령사회 분류기준을 따르면, 노인인구가 14%이상에 이를때 “고령 사회”라고 명명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어<sup>2)</sup> 2017년에 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총인구 대비 20.8%, 2040년에는 24.3%가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예측하고 있다.<sup>3)</sup> 지속적으로 변하는 국내외 정세 및 정보·산업 발전으로 변화에 신속한 적응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과도기적 진통과 이탈현상 등으로 사회적 노인 문제가 함께 두드러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4차에 걸쳐 이루어진 노인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년간 노인의 학력, 가구형태, 경제상태 및 노후 가치관 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노인의 학력은 크게 증가하여, 무학의 비율이 65.4%(1994년)에서 33.0%(2008년)으로 크게 감소하고, 중·고등 이상의 학력자가 10.8%(1994년)에서 29.0%(2008년)로 증가하였다.

노인독거가구 또한 13.6%(1994년)에서 19.7%(2008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26.8%에서 47.0%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는 급속히 감소하고 노인독거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노인의 주요 가구형태로 변화하고 있다.<sup>4)</sup>

## 2.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교육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은퇴로 인한 베이비붐세대의 노인세대 유입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총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sup>5)</sup>

---

2) 통계청, (2012),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3) 상계서

4) 보건복지부, (2011), p. 6.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에서 시작된 말로,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말하며, 현 미국 인구의 29%인 2억 6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미국의 신사회 주도계층으로 성해방과 반전운동, 록음악 등으로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왔다.

한편, 일본에서는 1947년에서 1949년에 출생한 사람을 베이비붐 세대로 하며, 인구규모는 806만 명이다. 1948년 국가가 정책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합법화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비교적 베이비붐 기간이 짧다.

즉, 베이비붐이란,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율이 3.0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거대 인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국제 공통의 통계적 기준으로 분류된 개념은 아니다.<sup>6)</sup>

고령화로 인해 과생되는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장기적인 정책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이 관련 학계에 요청됨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고 있다. 일부 언론 및 학계에서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가치와 지식의 재환원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노인들은 미래로 갈수록 빠르게 성장하는 의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환경 속에 살아갈 예정이다. 과거의 노인 세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 생존의 욕구가 가장 컸다면, 현대의 노인 세대는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욕구가 매우 높다. 또한, 2060년에는 더 높은 교육수준과 능력을 가진 노인 세대가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높아지는 교육수준은 폭 넓은 취미 생활과 수준 높은 여가 및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와 직결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비붐 세대

5) 통계청, 전계서, (65세이상-2010년 11.0%, 2017년 14.0%, 2030년 24.3%, 2060년 40.1%)

6) 최영준, (2013), pp. 45-67.

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5%미만으로,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표 1>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생학습 참여율<sup>8)</sup>

연령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5 ~ 34세	37.3	9.0	32.0	19.7
35 ~ 44세	33.1	2.2	31.8	18.0
45 ~ 54세	25.2	1.1	24.3	11.5
55 ~ 64세	21.2	2.0	20.5	6.9

■ 2010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 연령은 47-55세임.

즉, 노인들의 성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성이 커져감에 따라 노인생활실태와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의 연구는 노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현대 노인들의 사회적응과 자기발전, 자아개발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동적인 노인의 역할을 탈피하고 주체성과 능동성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써 노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노년 인구 확대와 노년기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장되어감에 따라 노화를 긍정적인 개념으로 수용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성공적 노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평생교육기능의 주체로서의 복지관의

7) 노일경, (2011), p. 89.

8) 상계서, p. 89.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하위에 생성된 학습 동아리를 살펴보고, 노인학습동아리 활동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상관관계에 있음을 검증하여,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학계 및 교육학계의 선행연구와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문헌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하위에 생성된 노인학습동아리의 참여에 따른 성공적 노화와 관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은평구 내의 대형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지를 배부, 회수하여, 해당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계량적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이론의 성립배경

####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이라는 정신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란 한 사람의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인생의 합리적 설계와 생애의 의미있는 개발을 위한 교육을 말하며, 공식화된 학교 교육과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전 생애에 관련된 교육이며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 관련된 기회를 필요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을 포함한다.<sup>9)</sup>

한국의 평생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외국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평생교육의 학문적 발전은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고,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 공식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대 이후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평생교육학에 관한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관련분야에서의 연구와 실천적 활동은 어떤 다른 학문보다 그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학과 신설로 학생 수의 증가와 유사 학문분야에서 평생교육과 연계된 연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생학습이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은 교육현상이 독립적인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0)</sup>

---

9) 김필레, (2014), pp. 8-9.

정보의 흐름이 빨라지고 다양한 기술과 혁신들이 빠르게 성장하기 이전에는 학교나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것만으로 개인의 인격 형성, 자아 확립, 사회화 등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시대가 흐를수록 기존 지식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정보들이 유입되며, 이들을 다양한 경로로 습득하여 삶에 적용시켜 나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개인의 생애와 사회 전체를 연계하여 총체적인 교육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완전한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과업이 되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에서 지칭하는 학습의 대상과 시간대는 ‘개개인’과 ‘평생’이며, 확장된 인간 발달의 모든 단계와 내용을 포함하고 인간의 삶과 교육, 평생은 서로 교차하고 융합하며 다양한 평생교육의 모양새를 만들어간다.<sup>11)</sup> 즉, 평생 교육은 사회적 변화와 대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목표를 수반하며,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욕구와 능력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 특수 교육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교육’은 유럽에서 60년대 말부터 노인의 직업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되어, 미성숙자를 가르친다는 페даго지(Pedagogy)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Breloer, 2000). Kallmeyer(1976)가 노년기의 학습능력을 주장하고, 노년기의 사회화과정에 평생교육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노인교육은 페даго지의 속성에서 벗어나 학습의 개념(Roberson & Merriam, 2005 ; Vath 1973)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 ‘노인교육’이 정의 되었으며, Schauble(1995)는 노인교육을 노인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목적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3의 사회화”로, Poeggler(2000)는 “노화되는 것을 학습하는 것”으로,

---

10) 이석진 외 2명, (2012), p. 66.

11) 성낙돈 외 1명, (2013), p. 19.

그리고 Veelken(2000)은 노년기의 길을 안내한다는 의미에서 “노인의 정체성의 개발과 노인이 소지한 잠재력의 개발이 양가지망(Engagement)”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인학습자에게는 학습 내용과 교육자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취미활동 등에 대한 학습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학습 과정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적응을 일차적 목표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화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적 학습 커리큘럼과 하위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한정란(2008)은 노인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인교육의 주요 원리를 밝힌 바 있다.

① 자기주도적(self-directed learning) 학습의 원리

노인교육에서는 노인학습자들의 학습 환경과 상황에 따라 과정이 재구성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요구 된다. 즉,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문제해결중심의 과제, 토의, 실험, 실습, 견학, 회상 등의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에 효과적으로 반응한다.

② 유의미학습(meaningful learning)의 원리

노인 학습자들은 과제가 자신의 생활과 친숙하고 의미가 있을 때, 학습에 대한 능률이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개인적 환경과 성향등을 바탕으로 흥미, 발달 단계, 직업, 관심사, 학습동기에 근거한 유의미한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③ 융통성(flexibility)의 원리

융통성의 원리는 노인학습자들의 학습 시간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

규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학습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습의 주제나 교수 방법 등이 노인 학습자의 욕구 중심으로 언제든지 조정가능해야 함을 말한다.

#### ④ 학습자 중심의 원리

노인 학습자는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본인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 내용과 형식, 학습자의 욕구와 필요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상호존중의 원리

노인 학습자들은 친화적이고 상호적 도움을 받는 분위기에서 더욱 과업을 잘 수행하는 성향을 지니며, 이는 참여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⑥ 노인 중심의 원리

노인들은 학습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건을 가장 잘 배려해야 한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운영지침이 필요하다. 수업 분위기와 강의실 조명, 교재의 활자 크기 및 자료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청각 및 시각에 대한 특수성에도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은 집중력이 성인 학습자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업 시간의 길이와 학습강도를 학습자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노인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익숙지 않아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사회의 노인교육이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의 학습능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노인에게 있어서 노년의 지능은 노화할수록 감퇴하고 더욱 더

소멸되고, 인간의 창의력이 감소된다는 사회적 편견이다.

둘째, 노인들은 학습요구를 갖고 있지 않고, 학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편견이다.

셋째, 노인들은 학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편견이다. 이러한 세 가지 편견은 노년기의 학습이란 중요하지 않고, 노년의 학습은 어렵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sup>12)</sup>

또한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노인들의 긍정적 학습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란 ‘평생교육’과 ‘프로그램’이 융합된 용어로, 노인의 평생교육이란 생애학습의 일부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노인이 자기발달단계에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발달과정에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평생교육의 목적은 계속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으며, 노인인생의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노인의 평생교육은 사회적인 소외와 분리집단으로서의 노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자신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평생교육은 노년기에 보다 의미를 되찾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으

---

12) 한우식, (2011), p. 8.

로서 원조하고 지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학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York(1983)는 프로그램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의존적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app과 Poertner(1992)는 프로그램을 사회구성원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여러 활동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Patti(1983)는 프로그램을 “조직의 설립이념 또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기술을 클라이언트 집단에 적용하는 활동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Royse 등(2000)은 “특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화된 활동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규탁(1993)은 “특정한 사회복지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내용의 선정과 조직, 활동목표 체계, 시설, 이력, 예산, 지원체계, 기간 등과 관련된 전반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4)</sup>

천후섬에 의하면 노인평생학습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경우, 노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첫째, 인간이 누구나 똑같이 거치게 되는 노화과정을 이해하고 신체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노인 우울증이나 자신감 결여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다.

둘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학정보와 의료시설 이용법을 알 수 있어 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가정적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마음

---

13) 서명환, (2011), pp. 4-5.

14) 권중돈, (2013), p. 428.

의 준비를 하고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 넷째, 가족, 이웃, 사회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소외감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를 활용하여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sup>15)</sup>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연구 대상을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학습 커리큘럼을 가진 ‘노인복지관의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 2)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의 개념은 청소년과 성인들의 학습과정에서 발달한 개념으로 일정한 인원의 성인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나서 전문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토론을 통해 개인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는 공동체 활동이며 개인의 자아실현, 전문능력 향상, 지역사회문제 해결 참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임을 의미한다.<sup>16)</sup>

학습공동체란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이 연합한 하나의 단위로써, 학습이라고 하는 인간행위에 의해 관계 지어지는 한편, 그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 및 발전에 학습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규모나 범위에 따라 소그룹, 조직, 지역사회 차원의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평생학습동아리를 비롯한 팀학습, 실행공동체(CoP) 등은 소그룹 학습공동체라 볼 수 있다.<sup>17)</sup>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과 유사한 원리를 가진다.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은 학습동아리가 갖는 고유의 특징이며, 지금

---

15) 천후섬, (2014), pp. 17-18.

16) 김미예, (2013), p. 6.

17) 윤명희 외 1명, (2013), pp 224.

까지 발표된 다양한 평생학습동아리 관련 연구물에서는 자기성장,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구성원 간 상호학습, 학습결과를 발표하거나 사회에 환원시키는 사회참여 등을 평생학습동아리의 주요 활동결과로 제안되고 있다. 그 중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고 활동해 나가는 상호학습 속에서 지식 공유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평생학습동아리는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형식의 활동을 만들면서 학습해 나가는 학습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자발적이고 활발한 상호학습이 제안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8)</sup>

성인의 학습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난선(2011)의 연구에 나타난 학습동아리의 대표적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학습 기회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즉 시간, 비용, 시설 등과 같은 제약조건이 수반되는 별도의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단기강좌 중심으로 운영되어 강좌 전후의 학습준비 혹은 심화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학습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문제를 개인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개인들 간의 공동체 문제를 개인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간의 괴리감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성인들이 유사한 관심과 문제를 중심으로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서로간의 협조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 발전을 모색해가는 지역공동체 조직으로서의

---

18) 상계서, p. 227.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적 인적 자원 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해당 지역사회에 적합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으로서의 활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19)

이처럼 학습동아리란 공통된 주제나 목표를 위해 학습과 토론위주의 정기적 모임을 의미하며, 상호협력적인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 연구에서 학습동아리는 노인복지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방식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목표한 학습을 추진해나가는 모임으로 정의한다.

### 3.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는 1970년대 중반 삶의 질적 가치 증진으로 노화의 개념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발달된 개념으로, 1986년 미국 노년사회학회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많은 학자들이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체적 측면을 다루어왔으나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심리적 요인을 저평가하였다는 학계 의견이 제기됨으로써, Rowe와 Kahn(1998)은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과 적극적 사회 활동을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환경적 개념을 적용하여 최적의 노화를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과 환경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로 정의하였고 전반적으로 노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이론을 2002년 Crowther와 동료들(Crowther, Parker, Achenbaum, Larimore, & Koenig)이 이 모델에 긍정

---

19) 한우식 외 1명, (2010), pp. 191-210.

적 영성(positive spirituality)을 추가하였으며, Jung, Erikson, Baltes 등은 신체적으로는 쇠퇴하지만 내적으로 보다 원숙해지는 노년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Crowther와 동료들(Crowther, Parker, Achenbaum, Larimore, & Koenig)이 이 모델에 긍정적 영성(positive spirituality)이 영성을 포함한 다차원적 성공적 노화모델을 설정하게 된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상태로 정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Ng, Broekman, Niti, Gwee, & Kua, 2009)<sup>20)</sup> 이와 같이 성공적 노화는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과 영적 발달 특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빠른 시일에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견되는 가운데 사회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래의 노인층은 향상된 교육수준과 젊은 세대와의 격차 감소로 자신의 노후를 안락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 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며, 크게는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이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분리이론은 캔자스 시 성인 연구를 토대로 하여 Cumming과 Henry(1961)가 제시한 이론이다.

이는 최초의 포괄적이고 학제적인 노년학이론으로 보고 있다. 이는 노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분리이론을 주장하였다. 모든 사회는 노인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 권력이 이양되는 질서정연한 방식을 필요로 하며 대부분의 사회는 점차적으로 노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

20) 정순화 외 1명, (2013), pp. 59-79.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노인으로 하여금 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신의 노화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아통합을 도와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은퇴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은퇴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Henry(1964)는 성인초기에 사회에 맡을 디디기 시작하면서 중년기까지 점차 개입수준을 최고조로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역할을 감소시켜나가는 것이 노년기의 적응에 보다 용이하다고 하였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활동수준을 줄여나가고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를 통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됨, 감퇴하는 심리적, 신체적 수준에 조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이론에서는 노년기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분리되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노인을 재교육시키는 것보다 젊은 세대로 교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보다 기능적이라는 분리이론은 구조기능주의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노인을 은퇴시켜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노인이 수행하던 역할을 젊은 세대가 수행하도록 교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분리이론은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체계의 차원에서 노화를 설명하고자 시도한 대표적인 이론이기는 하지만 이는 실증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이들은 노화에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해나간다는 것이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캔자스 시 성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Robert Havighurst가 제시한 이론이다. Harvighurst와 그 동료들(1968)은 노인은 불가피한 건강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중년기와 다름없는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분리가 기능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다.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부나 생산적인 일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가치와도 일치한다. 활동을 제한받는 것은 분명 쇠퇴의 증거이며, 많은 노인들은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만족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처럼 활동이론은 모든 노인들이 자신의 젊은 시절만큼 활동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거나 혹은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은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헌하고 있으며, 가치있는 인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생에 의미를 부여해주며,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화에 대한 적응능력도 높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화로 인한 능력의 저하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능력의 저하로 인해 실제로 노인들은 중년기에 자신이 수행하던 역할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활동이론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활동이론에서는 활동수준보다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방식과 같은 변인들이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활동에 가치를 두는 정도는 자신의 생활경험이나 성격,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sup>21)</sup>

Fisher(1995)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목표의식,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자율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Ryff(1989)는 통합모형을 통해 자아의 다양성을 수용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심리적 안

---

21) 오미경, (2011), pp. 153-154.

녕감'을 핵심요소로 정의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자기수용, 자아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환경적 숙련,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6개의 긍정적 태도로 구성된다.

Rowe와 Kahn(1998)은 성공적 노화란 질병과 장애의 위험수준이 낮고, 높은 신체적·인지적 기능 수준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인생참여(사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성공적 노화라고 정의하였다. Crosnoe & Elder(2002)는 가족참여, 직업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활력을 성공적 노화의 요건으로 주장하였으며,

홍현방(2001)은 심리적 발달(자아개념과 통제감), 사회적 발달(사회 접촉, 가족 접촉),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박영란·이영숙(2002)은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봉사를,

성혜영·유정현(2002)은 사회적 관계유지 및 적응, 정신적·신체적 기능 유지, 삶의 만족, 복지혜택 및 편함, 경제적 준비, 질병 예방, 가족 간 관계,

강인(2003)은 신체적 건강, 개인 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

김미혜·신경림(2005)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Crowther와 동료들(2009)<sup>22)</sup>은 Rowe의 이론에 영성을 추가하여 질병과 장애의 위험수준이 낮음, 높은 인지적·신체적 기능수준 유지, 적극적인 생활참여(사회참여), 영성을 성공적 노화의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

22) 정순화 외 1명(2013), 전계서, pp. 59-79.

<표 2>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sup>23)</sup>

연구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
Ryff(1989)	자율, 환경조정, 개인 성장, 자이수용, 목표의식, 타인과의 상호 작용
Vaillant(1994)	신체적 건강(생물적 건강, 수명), 심리사회적 건강(정신적 건강, 심신의 활력, 생활만족)
Fisher(1995)	자율, 환경의 조절, 개인의 성장, 자이수용, 목표의식
Rowe & Kahn(1998)	질병과 장애의 위험수준이 낮음, 높은 인지적신체적 기능수준 유지, 적극적 생활참여(사회참여)
Crosnoe & Elder(2002)	가족참여, 직업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활력
홍현방(2001)	심리적 발달(자아개념과 통제감), 사회적 발달(사회 접촉, 가족 접촉),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박영란이영숙(2002)	자율, 개인성장, 이락한 생활, 역할완수, 자이수용, 상호교류, 봉사
성혜영·유정현(2002)	사회적 관계유지 및 적응, 정신적신체적 기능 유지, 삶의 만족, 복지혜택 및 편함, 경제적 준비, 질병 예방, 가족 간 관계
강인(2003)	신체적 건강, 개인 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
김미혜·신경림(2005)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Crowther와 동료들 (2009) <sup>24)</sup>	질병과 장애의 위험수준이 낮음, 높은 인지적신체적 기능수준 유지, 적극적 생활참여(사회참여), 영성

23) 권중돈(2013), 전계서, pp. 75-76.

24) 정순화 외 1명(2013), 전계서, pp. 59-79.

## 제2절 고령화와 평생교육

고령화 사회란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 여성의 사회진출 및 가사·양육 부담 가중,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으로 인한 출산율 급감, 의료 기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sup>25)</sup> 서울의 경우, 하루에 노인 인구가 200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문제들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다.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11%를 차지하며, 불과 7년 후인 2017년에는 14.3%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26)</sup>

우리 사회는 어떤 국가보다도 급진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동시에 복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령화에 대한 거부감이 사회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과 국가 계획에 의한 출산률 저하, 위생 및 의학 발달로 인한 사망률 저하 그리고 이촌향도형 인구 이동에 의한 가족 형태변화의 결과에서 기인한다. 이 중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의 가장 심각한 고령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7)</sup>

---

25) 이수정, (2014), pp. 469-486.

26) 통계청, 전계서

27) 정순돌 외 2명, (2011), pp. 203-224.

<표 3> 장래인구추계<sup>28)</sup>

년도	총인구		출생		사망	
	중위 가정	선택 가정	중위 가정	선택 가정	중위 가정	선택 가정
2010	49,410,366	49,410,366	486,000	486,000	261,000	261,000
2011	49,779,440	49,779,440	457,000	457,000	268,000	268,000
2012	50,004,441	50,004,441	457,000	457,000	278,000	278,000
2013	50,219,669	50,219,669	456,000	456,000	289,000	289,000
2014	50,423,955	50,423,955	455,000	455,000	299,000	299,000
2017	50,976,519	50,976,519	455,000	455,000	328,000	328,000
2020	51,435,495	51,435,495	451,000	451,000	356,000	356,000
2040	51,091,352	51,091,352	325,000	325,000	576,000	576,000
2050	48,121,275	48,121,275	306,000	306,000	718,000	718,000
2060	43,959,375	43,959,375	285,000	285,000	751,000	751,000

28) 통계청, (2012), www.kostat.go.kr

<표 4> 연령계층별 인구추이 및 노령화 지수 추이<sup>29)</sup>

구분	2016	2018	2026
총 인구	49,312	49,340	49,039
65세이상	6,585	7,075	10,218
구성비	13.4	14.3	20.8
노년부양비	18.2	19.7	30.9
노령화지수	100.7	112.5	178.6
노인 1명당 생산 가능인구	5.5	5.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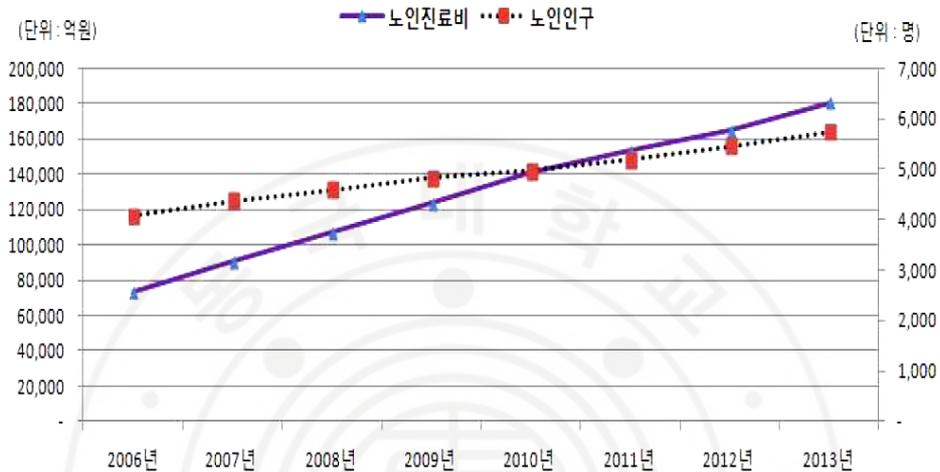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왔으며,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한계와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과 위기로 표현된 것이 사실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인구를 기반으로 해온 사회적 균형과 질서,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비춰져 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점은 다양하고 심각하다. 생산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 인구 감소와 연금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재정 위기, 노인의 부양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 노년기의 만성 질환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확대 등이 그것이다. 즉, 출생률 저하와 맞물린 노인들의 은퇴 현상은 노동시장과 국가 재정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개인적 영역에서의 역할 상실 및 사회적 참여 축소, 고

29) 상계서

립감 등과도 연결되어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추이<sup>30)</sup>



<그림 1>의 2013 건강보험통계연보의 노인진료비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8조 85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5.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322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740천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1.5%임을 감안 할 때 노인 진료비의 증가 추이는 기이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 질병 문제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의 고령화가 예상했던 것처럼 인류와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위기인 것만은 아니라 일종의 도전이며 충분히 해결가능한 과제로 보는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다.(Anderson and Hussey, 2000 : Fealy and

30)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p. 143.

McNamara, 2009)<sup>31)</sup> 현대 사회의 노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면 건강 유지와 수준 높은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 실제로 주위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재능을 기르고,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인 노인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2/3의 노인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추정되었다.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60대가 약 30%에 달하고 있어 노인 계층의 다양성과 분화가 예상되고 있다. 노인의 31.6%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노인의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노인의 거주형태는 단독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70~74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0세였다. 즉, 통상적으로 정의되는 65세가 노인들에게는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들은 자녀와의 동거를 당연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곧 노년기에 접어들 예비노인인 베이비 부머들은 대부분 단독가구를 희망하고 있다.<sup>32)</sup>

이는 지금의 노인들이 과거의 노인들과 비교하여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향상된 경제력과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예측하며 노년층이 사회의 노동력이자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을 증명해준다. 즉,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위한

---

31) 정순돌 외 2명, (2011), pp. 203-224.

32) 보건복지부, (2011), p. 641.

개인과 사회의 노력, 노인 차별 극복을 위한 사회의 통합을 위한 접근들은 고령화 사회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을 함축하고 있지 않으며, 도전과 기회의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3)</sup>

고령인구의 인구학적 특성들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우나, 노인들은 교육과 여가생활 관리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사회 공헌적이며 주체적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다.

### 제3절 사회복지와 종교

#### 1. 종교와 한국사회

종교는 인류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모든 민족에게서 보이는 문화현상으로, 정치·경제·사상·예술·과학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가치 체계로서 기능해 왔다. 종교라는 용어는 본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불교어였으나, 서양의 'religion'의 번역어로 쓰이게 되면서 일반화된 것이다. 'relig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religio'로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외경의 감정과 그것을 표현하는 의례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현재 'religion'의 번역어로서의 '종교'는 불교·기독교·이슬람교·유교 등의 개별 종교들을 총칭하는 유(類)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교의 기본 요소는 신·부처·영(靈)·법·원리·도 등으로 불리는 초월적·절대적 존재에 대한 체험이다. 종교는 이러한 종교 체험을 핵으로 하여 그러한 체험을 공유하고 또한 공유하고자 하는 일정한 공동체(종교 집단)를 형성한다.

여기서 종교는 인간이나 자연의 힘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체험에 기

---

33) 정순돌 외 2명(2011), 전계서, pp. 203-224.

반을 둔 교의·의례·시설·조직을 갖춘 사회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34)</sup>

현상으로서의 종교는 역사의 발전 단계나 민족적·문화적 전통의 차이에 따라 현저한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논자의 관점과 대상에 따라 종교에 대한 엄청난 수의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sup>35)</sup>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1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약 53% 이상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종교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에 시간과 재화 등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sup>36)</sup>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노인의 65.3%가 종교를 갖고 있으며, 이중 종교가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21.6%, 중요하다는 응답이 49.6%이며, 그저 그렇다가 26.4%로 나왔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2.2%,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2%로 소수였다.

즉 노인의 약 2/3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 70% 정도는 본인의 삶에 있어 종교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 종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성을 갖는 의미 있는 활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7)</sup>

## 2. 종교사회복지

‘사회복지’란 단어는, ‘복(福)’과 ‘지(祉)’의 결합된 용어로, 두 글자 모두 ‘복(福)’을 의미하여, 잘 산다는 것을 나타낸다. 복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welfare’ 역시 ‘well’과 ‘fare’의 합성어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5) 상계서

36) 문화체육관광부, (2011), p. 11

37) 보건복지부, (2011), 전계서, p. 217.

잘 지내는 안녕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welfare)란 ‘행복한 삶’, ‘안정되고 만족한 삶’, ‘만족할만한 생활환경’, ‘생활욕구가 충족된 삶’으로 표현<sup>38)</sup>된다. 이 의미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복지의 대상이며, 누구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19세기 이후 산업화 또는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전통적인 사회체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예방 내지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사회복지이다. 여기에 사회과학의 발달로 인해 과학적 수단이 동원됨으로써 근대적 사회복지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의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노인·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육성·지도·치료·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사회보장·보건·의료·주택·고용·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다.<sup>39)</sup>

이 외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혹은 학자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사회현상이나 정책목표, 혹은 추구하는 지향점에 대한 국가별 차이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보편적으로 “사회복지란 개인 또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sup>40)</sup>”이라고 정의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가는 방식이 가장 포괄적이라고 본다.<sup>41)</sup>

‘사회복지’에 관한 정의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사회복지’ 또

---

38) 서병진, (2010), pp. 100-101.

39) 서병진, (2013), pp. 175-234.

40) 서병진, (2010), p. 23.

41) 서병진, (2013), pp. 175-234.

한 어떠한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나, 보편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인간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고,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교가 행사하는 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은 빈민구제 및 사회봉사 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어 종교계와 상통하는 점이 많다. 종교의 이념인 자선, 인도주의 및 이타주의적 교리 등은 사회복지 이념으로써 실제로 오늘날의 대다수 사회복지 사상은 종교적 교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sup>42)</sup>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발달해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은 공사의 역할분담을 모형으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사적영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와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의 형태가 민간주도형 복지체계에서 국가 주도형 혼합복지체계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한국사회 전반의 교육 영역, 사회복지영역, 국방 영역, 법무 영역 등 적지 않은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종교는 중요한 ‘문화자본’이며 종교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사회복지, 문화재, 국방, 법무 등의 다양한 영역에 개입하고 있고, 이들 영역에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sup>43)</sup> 이와 같이 사회복지에 있어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sup>44)</sup>

2011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종교 활동을 하는 인구는 점진적으로 늘어왔다. 2011 종교별 법인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교계는 인적·물적 자원 등 다양하고 풍부

---

42) 이충열, (2013),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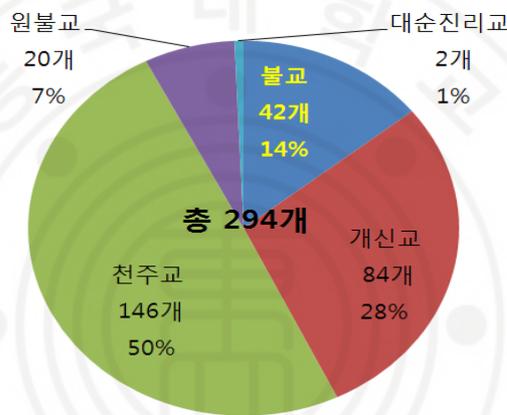
43)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제서, pp. 4-5.

44) 오세영, (2013), pp. 399-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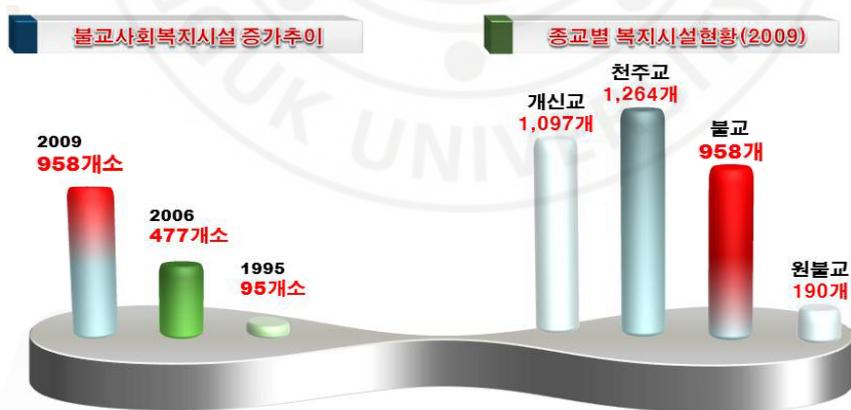
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이념과 종교계 기본 철학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종교는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민간부문이다.<sup>45)</sup> <그림 2>와 <그림 3>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 정책의 부족한 점들을 우리나라의 종교계 및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은 부분 충족시키고 있다.

<그림 2> 종교단체별 종립 요양·의료기관 현황<sup>46)</sup>



<그림 3> 불교사회복지시설 증가추이와 종교별 현황 비교



45) 노길명, (2010), p. 194.

46)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계서, pp. 124-138.

종교는 교리에 근거한 자선이나 이타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주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관이나 동기부여의 기능으로 장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히긴스(Higgins)는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사회정책의 결정적 요인으로 종교사상의 영향을 들고, 서구에서 기독교 교회의 역할과 일본에서의 불교의 영향력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사회사업의 70%정도가 종교재단에 의해 운영된다고 밝혔다<sup>47)</sup> 종교의 사회복지 역할은 민간복지의 다양한 활로와 다양하고 복잡한 소외계층 사회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복지의 원동력이다.<sup>48)</sup>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그 범위로 한다. 세부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 용양 공동 생활가정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 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가 포함된 개념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sup>49)</sup>

### 3. 종교계와 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은 급속한 고령 현상으로 노인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한 정책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종교는 이타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동기를 갖추고,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및 지적자원이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전달체계를 갖

---

47) 서병진, (2010), p. 8.

48) 이충열(2013), 전계서, pp. 25-39.

49) 김연희, (2013), pp. 194-195.

추고 있다는 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들은 우수한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의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종교는 노인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위한 해결책으로 많은 학자들이 평생교육을 통한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및 재사회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노인대학, 경로당, 복지관 등 이용 시설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으나 정확한 추계는 어려운 실정이며, 2008년 10월 기준으로 총 986개의 종교계 노인교육기관이 집계되었고, 한국노인학교연합회 소속 노인학교 561개, 감리회 노인대학협의회 소속 노인대학 134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대학연합회 소속 노인대학 269개 불교 조계종 중심의 노인대학 22개 등으로 나타났다.<sup>50)</sup>

---

50) 한정란 외, (2011), pp. 121-149.

<표 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교 현황<sup>51)</sup>

특성	불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종교 없음	계(명)
전체 <sup>D)</sup>	31.3	21.8	9.7	1.8	0.2	0.6	34.7	100.0(10,545)
지역								
동부	29.4	24.1	12.2	1.3	0.2	0.5	32.3	100.0(7,150)
읍·면부	35.2	16.7	4.4	3.0	0.2	0.5	40.0	100.0(3,394)
성								
남자	24.6	17.0	8.3	3.2	0.2	0.3	46.5	100.0(4,548)
여자	36.3	25.3	10.7	0.9	0.2	0.7	25.8	100.0(5,996)
연령								
65-69세	32.0	20.6	10.5	1.5	0.2	0.4	34.7	100.0(3,149)
70-74세	33.1	20.8	9.3	2.4	0.2	0.5	33.7	100.0(3,228)
75-79세	30.0	22.6	8.6	1.9	0.2	0.5	36.2	100.0(2,390)
80-84세	28.6	25.5	10.2	1.7	0.3	0.7	32.9	100.0(1,163)
85세 이상	27.5	22.1	10.4	0.8	0.0	0.7	38.4	100.0(61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30.6	19.9	8.9	2.5	0.2	0.4	37.6	100.0(7,121)
배우자 없음	32.7	25.5	11.1	0.6	0.3	0.9	28.8	100.0(3,423)
가구형태								
노인독거	32.4	25.4	10.3	0.8	0.3	1.1	29.7	100.0(2,087)
노인부부	31.4	19.4	8.4	2.8	0.2	0.4	37.5	100.0(5,121)
자녀동거	31.0	23.2	11.3	0.9	0.1	0.5	33.0	100.0(2,850)
기타	26.7	22.2	10.5	2.3	0.0	0.4	38.0	100.0(48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5.4	17.3	5.2	0.3	0.1	0.8	40.8	100.0(1,146)
무학(글자해독)	33.3	22.8	7.9	1.2	0.1	0.9	33.8	100.0(2,185)
초등학교	34.6	20.0	8.4	2.2	0.2	0.5	34.0	100.0(3,744)
중·고등학교	27.0	21.8	12.9	2.7	0.2	0.3	35.1	100.0(2,737)
전문대학 이상	17.8	33.9	16.1	1.5	0.3	0.3	30.1	100.0(734)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1	17.7	5.4	3.1	0.2	0.4	39.2	100.0(3,567)
미취업	29.8	23.8	11.8	1.2	0.2	0.6	32.4	100.0(6,9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5	23.9	8.7	1.1	0.2	1.0	35.6	100.0(2,113)
제2오분위	33.8	20.5	8.7	3.0	0.2	0.8	33.1	100.0(2,120)
제3오분위	33.1	19.5	7.8	2.3	0.1	0.2	37.0	100.0(2,101)
제4오분위	30.1	22.2	9.1	1.9	0.2	0.3	36.2	100.0(2,115)
제5오분위	29.8	22.7	14.1	0.9	0.2	0.4	31.9	100.0(2,094)
기능상태								
제한 없음	31.6	21.4	9.7	1.9	0.2	0.5	34.7	100.0(9,075)
제한 있음	29.3	23.9	9.4	1.4	0.2	0.7	35.1	100.0(1,472)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무응답 없음.

51) 보건복지부, (2011), p. 218.

<표 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삶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도<sup>52)</sup>

특성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	종교의 중요도 <sup>2)</sup>					계(명)
		매우 중요	중요한 편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은 편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sup>1)</sup>	65.3	21.6	49.6	26.4	2.2	0.2	100.0(6,865)
지역							
동부	67.7	25.5	47.2	24.9	2.2	0.2	100.0(4,832)
읍·면부	60.0	12.5	55.2	30.1	2.0	0.1	100.0(2,032)
성							
남자	53.5	18.1	47.5	31.5	2.7	0.2	100.0(2,431)
여자	74.2	23.6	50.8	23.7	1.9	0.1	100.0(4,435)
연령							
65-69세	65.3	22.2	48.4	26.5	2.6	0.2	100.0(2,054)
70-74세	66.3	20.5	49.2	28.2	1.8	0.3	100.0(2,135)
75-79세	63.8	21.3	50.4	25.7	2.5	0.1	100.0(1,521)
80-84세	67.0	25.1	50.5	22.3	2.1	0.0	100.0(776)
85세 이상	61.6	18.7	53.3	27.2	0.8	0.0	100.0(37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62.4	20.9	48.5	28.1	2.4	0.2	100.0(4,434)
배우자 없음	71.2	23.0	51.7	23.5	1.7	0.2	100.0(2,430)
가구형태							
노인독거	70.3	23.3	52.0	22.9	1.6	0.2	100.0(1,465)
노인부부	62.6	19.9	49.4	28.3	2.2	0.2	100.0(3,196)
자녀동거	66.9	22.2	48.8	26.1	2.7	0.2	100.0(1,901)
기타	62.0	27.8	45.0	25.5	1.7	0.0	100.0(30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9.1	13.7	55.9	28.2	2.1	0.1	100.0(673)
무학(글자해독)	66.2	19.2	51.7	26.7	2.2	0.2	100.0(1,445)
초등학교	66.0	20.0	49.4	28.0	2.4	0.1	100.0(2,461)
중·고등학교	64.9	25.6	47.7	24.7	1.7	0.2	100.0(1,774)
전문대학 이상	69.9	32.6	42.9	21.8	2.5	0.2	100.0(513)
현 취업상태							
취업중	60.8	15.7	51.2	30.5	2.5	0.1	100.0(2,164)
미취업	67.6	24.4	48.9	24.5	2.0	0.2	100.0(4,7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4.4	21.5	53.4	22.8	1.8	0.4	100.0(1,359)
제2오분위	66.9	18.8	49.0	30.1	1.9	0.1	100.0(1,414)
제3오분위	63.0	20.7	49.3	26.6	3.2	0.2	100.0(1,321)
제4오분위	63.8	23.1	50.0	25.2	1.7	0.0	100.0(1,347)
제5오분위	68.1	24.1	46.5	27.1	2.3	0.1	100.0(1,422)
기능상태							
제한 없음	65.3	21.9	49.2	26.6	2.2	0.2	100.0(5,912)
제한 있음	64.9	20.1	52.4	25.5	1.8	0.2	100.0(953)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대상으로 함.  
 2) 종교를 가지고 있는 6,881명중 무응답 16명을 제외함.

52) 상계서, p. 219.

<표 7> 한국의 종교 현황<sup>53)</sup>

구분 종교별	2011년 총단체 수	수치 파악			신도 수 (명)		
		2011년 교당수 (개소)	2011년 교직자수 (명)	비고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0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11.1)
불교	265	26,791	46,905	137개 종단	10,726,463	10,321,012	8,059,624
개신교	282	77,966	140,483	118개 종단	8,616,438	8,760,336	6,489,282
천주교	1	1,609	15,918	성당수	5,146,147	2,950,730	1,865,397
유교	1	234	235	향교수	104,575	210,927	483,366
천도교	1	105	630		45,835	28,184	26,818
원불교	1	550	1,979		129,907	86,823	92,302
대종교	1	22	11		3,766	7,603	11,030
그밖의 종교	64	2,891	26,650	20개 종단	197,635	232,209	175,477
계	566	109,668	282,811		24,970,766	22,597,824	17,203,296

\* 단체수, 교당수, 교직자수, 2012년 3월 20일까지 각 종단 협조 자료의 수치를 집계한 것임.

\* <’9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4,553,710>

\* <’0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7,041,434>

53) 보건복지부, (2011), p. 9.

<표 8> 종교별 법인현황(2011)<sup>54)</sup>

구분 사·도·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기타종교		소계		계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서울	31	63	77	138	33	12	2	5	9	11	152	229	381
부산	10	11	8	3	7	2	1	-	-	-	26	16	42
대구	2	2	6	1	2	1	1	-	-	-	11	4	16
인천	2	2	3	13	2	-	1	-	-	1	8	16	24
광주	-	2	3	1	3	-	1	-	-	-	7	8	10
대전	3	7	3	3	3	1	1	-	3	-	13	11	24
울산	2	4	-	1	-	-	1	-	-	-	3	5	8
경기	10	13	12	22	10	2	1	-	1	-	34	37	71
강원	2	-	4	1	3	-	1	-	-	-	10	1	11
충북	3	4	2	3	3	-	1	-	1	-	10	7	17
충남	-	1	3	1	1	1	1	1	-	-	5	4	9
전북	1	2	5	14	1	-	1	-	1	1	9	17	26
전남	1	3	4	-	-	-	1	-	-	-	6	8	9
경북	3	10	7	1	3	1	1	-	-	-	14	12	26
경남	-	9	1	1	6	-	1	1	1	2	9	13	22
제주	1	3	2	1	1	-	1	-	-	-	5	4	9
소계	71	136	140	204	78	20	17	7	16	15	322	382	705
계	207		344		98		24		31		705		

54) 보건복지부, (2011), p. 54.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노인복지관을 통한 교육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정책적으로 운영되고,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학습 연장선으로써 노인동아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부족한 학습에 대한 보충,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체성 확립 등 평생교육의 보완이라는 확장 교육을 목적으로 노인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참여자를 비교, 분석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밝혀내고, 프로그램에 기반한 확장 학습으로써의 노인동아리 활동을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노인 인구의 증가와 급진적 사회변화는 복지정책 수립에 다양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노년층의 욕구를 수용하는 것 역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노인들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교육은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나이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이다.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최근 기업과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권 및 지역 내의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취미·교양에서 기술·취업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성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그들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프로그램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평생교육환경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 또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 흔히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교과목위주의 전문가에 의해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식·기술·태도·가치 등의 주제를 조직화한 것인 반면,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개인적 문제와 요구를 중심으로 그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평생교육은 현실적인 필요로 인하여 생겨나는 학습이나 훈련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의도적인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sup>55)</sup>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지환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프로그램의 만족도 결과,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학력, 직업 유무에 따라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차이를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이나 취미 문화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쉽게 친숙해지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프로그램 이용이 더욱 활발하였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55) 은주희 외 1명, (2013), pp. 479-480.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 기타 프로그램을 제외한 취미 문화 활동 프로그램, 건강 증진 프로그램, 학습 교육 프로그램 등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해당 기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욕구는 강한 반면에 해당 프로그램이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프로그램의 질이 낮을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타 프로그램의 경우보다 훨씬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질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sup>56)</sup>

정순들은 노인복지 지표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 부양, 소득·고용, 보건·의료, 안전, 여가활동·사회참여, 재가복지서비스 등 7가지 영역에 따라 1988년부터 2011년까지 발간된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초창기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노인복지 지표들 영역에 부합된 정책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초창기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최근 노인복지 지표들 영역에 부합된 총체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

56) 김지환, (2010), pp. 98-99.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시설로 되어있으나 실상은 종합복지시설인 만큼 노인복지관 사업, 즉 ‘프로그램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해보고, 사회교육과 정서적 치료프로그램의 비율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관 서비스 대상층과 관련하여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복지관에서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은 건강증진이나 유지, 예방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노인만이 아니라 노인의 가족까지 서비스 대상이 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베이비부머를 시작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의 연령층은 더욱 넓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욕구도 다양해질 것이며, 사회현상과 맞물려 더욱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에 대한 재확인 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이용비율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에 맞는 선택사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다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4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욕구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대체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가 낮고, 소득, 의료, 재가서비스, 주택 영역에서의 욕구만 나타내고 있으나 2004년 실태조사에서는 노인들의 관심사를 토대로 취업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문화여가복지, 교통 및 주거환경 등의 욕구 등이 추가되었다.

최근 2008년 조사에서는 가사지원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도 추가되어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해 거의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 영역별로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09년에는 노인학대상담, 2011년에는 노인자살예방, 노인소비자 피해 신고 등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시대의 욕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제공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복지관이 획일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 보다 선택사업으로 하는 것이 노인복지관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필수사업을 기반으로 선택사업이 각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 지표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 새롭게 개발할 사업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고용영역에서는 대부분 일자리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조기 은퇴가 사회현상이 된 시점에서 은퇴준비나 은퇴 후 일자리 유지, 은퇴 후 자산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NCOA(National Council on Aging) (2011)에서는 사전 은퇴준비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도 그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정해준 방향에 따라 노인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지만, 노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침서를 토대로 노인복지지표에 맞추어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프로그램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노인들의 욕구에 적절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57)</sup>

권미진은 ‘노·아사랑 무릎학교’라는 자원봉사활동을 대상으로 노인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써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단위 어

---

57) 정순돌 외 2명(2011), 전계서, pp. 177-196.

울림이 부족한 노인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어울림의 경험을 제공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며,

둘째, 노인 봉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지식에 대한 반성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반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은 성격의 변화, 생활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아이들과의 만남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보다 성격이 밝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이 평생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체적으로 노후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보다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해온 것을 프로그램화 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노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하였다. ‘노·아사랑 무릎학교’에 참여한 노인자원봉사자들은 과거 경험을 재생산 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 줌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고 이를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봉사활동에 임해온 노인 봉사자들은 전문가 수준의 지도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를 위해서는 봉사활동 횟수 증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sup>58)</sup>고 주장하였다.

노일경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비용은 참여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보다 외부 지원을 통해 무료 또는 저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명목상 드러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다양하나, 은퇴 후 생활의 다양성을 고려한 실질적 내용과 방법의 다양함이 추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부분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 주제를 나열해 놓은 형태라고 하였다.<sup>59)</sup>

---

58) 권미진, (2011), pp. 69-71.

59) 노일경(2011), 전계서, p. 89.

박인중은 급진전되는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에 따른 평생학습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베이비붐 세대 교육정책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고령자를 포함하여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고령자 지원 정책으로 차별화 없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의 부서를 주축으로 추진되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별다른 정책 제시는 없었다고 평가했다.<sup>60)</sup>

최상오는 노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관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학습자의 개인적 배경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수준과 참여 동기에 차이가 있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의 학습 환경과 교수 설계가 노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기관의 특성 중 학습 환경과 교수설계 요인들이 평생학습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노인학습자들은 평생교육기관의 교통이나 편의시설, 학습비 등과 같은 학습 환경 보다 우수한 교수진,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학습자들 간 활동 지원 등의 교수설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노인평생학습 전문 강사를 발굴하고 노인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습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운영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한

---

60) 박인중, (2011), pp. 89-91.

다면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이끌어 냈고 동시에 노인평생학습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sup>61)</sup>

김효경은 노인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며 학습 동기, 능력 등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다른 연령대 학습자와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경험과 가치를 통해 삶을 살아온 노인학습자들에게는 단순히 평생 동안의 학습보다는 누구에게나 쉽고, 가능한 평등한 학습이 구축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학의 노력이 필요하다<sup>62)</sup>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의용, 변상해는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만족이 노인의 우울정서와 안녕감에 미치는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경제력과 신체적 활동성이 떨어지고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의 정서와 안녕감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는 노래, 건강체조, 스포츠 댄스, 중국어, 한문서예, 컴퓨터 기초 등이 분야별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 결과는 노인들이 지식의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친목과 신체적 활동에 더 많이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인의 우울정서는 성별과 결혼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연령과 학력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라 우울감과 안녕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물이나 자신의 내면을 관찰할 때 지각하는 정도가 인지적 수준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프로그램 만족도와 우울정서감 사이에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정되었다. 매개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은 우울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독립변수인 만족도와 함께 측정된 영향관계에서는 우울정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sup>63)</sup>

---

61) 최상오, (2011), pp. 77-78.

62) 김효경, (2013), pp. 105-107.

오애숙은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 학습자의 참여 동기 및 만족도 분석 결과 노인복지관에서 노인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와 목적은 주변의 권유나 기타의 동기보다는 자발적인 필요에 의한 참여 또는 스스로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참여에서 동기와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교육 환경 및 시설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교수자와 학습자 지원서비스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에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가정생활에서의 즐거움이 높아졌고, 정서적으로는 외로움이 적어졌으며, 행복감을 물었을 때 삶의 즐거움이 많아졌고 사회적으로는 친구들이 많아진 게 큰 만족을 보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중졸이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을 때가, 용돈은 많을수록 높았으며, 은퇴 전 직업에서는 전문직이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건강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이를 중요시하는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현황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의 권유로 참여한 집단이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 받은 기관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종교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집단이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 저렴한 교육비용과 참여횟수가 많았을 때에도 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프로그램 교육참여기간이 짧을수록,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sup>64)</sup>

---

63) 이의용 외 1명, (2010), pp. 2012-2022.

64) 오애숙, (2013), pp. 52-53.

김영진은 인천지역 노인복지관 운영 실태를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와 서비스 욕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조사하였으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확대 및 지역사회 노인교육관련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양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보급 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교육 전문가를 양성·배치하여야 하며, 대학에 노인 관련 교과목을 추가 개설하고, 자격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인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sup>65)</sup>

임흥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외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례를 함께 다루며 네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다양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급을 위해서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 확충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화를 위해 교육과정 등 노인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소회계층을 위하여 여가활동 기회가 형평성 있게 제공되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보급해야 한다.

넷째, 개인이나 가족 중심적인 여가활동에서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갖춘 여가생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sup>66)</sup>

천후섭은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선호프로그램 조사, 생활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65) 김영진, (2014), pp. 10-11.

66) 임흥수 외 2명, (2014), pp. 81-100.

첫째,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노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평생교육 이용노인 중 여성노인이 많은 관계로 프로그램 구성이 여성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남성노인들에게 적합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 교수방법으로는 전통적인 강의식을 선호했으며 그 다음으로 시청각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고학력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시청각교육 등 새로운 강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신호로 보인다.

셋째, 평생교육 이용으로 삶의 변화 및 생활 만족도를 알아보면 평생교육기관 중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스로 참여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가장 큰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대학, 평생교육 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소일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나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는 권위의식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생활만족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노인이 많아 다방면의 홍보와 의식개혁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하겠다.<sup>67)</sup>

## 2. 노인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학계에서 다수 거론되어 왔다. 학습동아리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학습동아리의 활성화와 참여지속에 관하여 연구되었으며,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적 관점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기영화의 노인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학습동아리 참여노인들은 ‘추가적인 배움의 욕구 인식’이라는 중심현상이 일어났으며 ‘지식의 공유’와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상호작용 전

---

67) 천후섬(2014), 전계서, p. 71.

략 속에서 학습동아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맥락적·중재적 조건들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에 활용’과 ‘긍정적인 자아 인생 성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학습동아리 참여노인의 학습경험 과정은 ‘배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단계’, ‘학습동아리의 필요성 인식 단계’,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 단계’, ‘학습동아리의 참여 성과 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습동아리 참여노인의 개인적 지속요인은 ‘학습에 대한 목표의식’, ‘라이벌 의식과 선의의 경쟁’, ‘올바른 학습리더의 역할’, ‘동아리 회장의 리더십’, ‘동아리 내 소통의 채널’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습동아리 참여노인의 학습경험 과정과 지속요인의 핵심 범주는 ‘배움의 충족을 바탕으로 지식의 공유와 인간관계 형성을 통한 참된 자아의 발견’으로 나타났다. 68)

지희숙은 ‘성인학습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동아리는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학습동아리 결을 만들어가며, 학습중심의 동아리와 학습과 관계를 중시하는 동아리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였다. 학습동아리는 일상생활중심의 교육적 학습허브라는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며, 방송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학습망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sup>69)</sup>을 제시하였다.

김정진은 ‘노인학습동아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한 사례연구’에서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방법을 활용하여 노인학습동아리가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고, 평생학습이 노인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sup>70)</sup>

---

68) 한우식 외 1명(2010), 전게서, pp. 191-210.

69) 지희숙, (2012), pp. 233-255.

70) 김정진 외 1명, (2013), pp. 39-59.

김영민은 노인에게 적합한 동아리 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동아리는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 창조 또는 변화가 가능한 체계적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노인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고학력, 양호한 건강상태, 보통수준의 경제력, 대다수의 노인 단독 가구라는 특징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을 위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복지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김영민이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아진다.

둘째, 참여자의 적극성이 높을수록, 참여자간 관계가 좋을수록, 활동이 적합할수록, 활동만족이 클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 역시 높아진다.

셋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적인 삶의 결정요인은 활동적합성, 참여자간 관계로 분석되었고 적극적인 인생참여 결정요인은 활동적합성, 참여자의 적극성, 참여자간 관계로 분석되었다.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은 참여자의 적극성, 활동적합성, 참여자간 관계로 나타났고, 자아통합감의 결정요인은 참여자의 적극성, 참여자간 관계, 활동적합성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성공적 노화의 결정요인은 활동적합성, 참여자의 적극성, 참여자간 관계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자신에게 적합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참여자간 관계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정도가 높아진다.<sup>71)</sup>

장소은은 노인동아리 활동의 의례과정에서 일어나는 무형식적 학습이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과 신체적 무기력, 외로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노인동아리 의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 학습의 의미는 주체적 노인에 대한 학습으로 노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은 노인교육과 관련한 정체성, 자발성에 관한 교육

---

71) 김영민, (2012), pp. 95-99.

적 행위의 교육학적 관점을 시사함을 주장하였다.<sup>72)</sup>

또한 G\_Simmel의 사회적 공간담론 관점에서의 노인동아리 사례연구를 통해 Simmel의 사회적 공간의 친교개념을 학습공동체 연구의 토대로 설정하여 기존의 학습공동체가 가지는 규범적 전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인학습공동체는 진정한 자아의 만남과 상호작용 관계로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신들의 특정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며, 노인의 자발성과 주도성이 단순히 노인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노인 주체가 스스로 이러한 성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에서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적 공간담론에 따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공간에 관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즉, 사회적 공간담론을 통해 노인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육적 공간에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인으로 학습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지향적 노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사회적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사회적 공간에 좀 더 주목해서 논의해볼 수 있으며 학습이라는 형식보다는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공동체 활동의 전체를 주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73)</sup>

김효경은 노인 학습자들이 실질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시켜 나가는 확장적 모습에 주목하여 그들이 삶을 재구성하고 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특성을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근거로 살펴보았으며, 노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습하는 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여러 수준의 모순들은 노인들의 학습 또는 생활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문화적·사회적 규칙

---

72) 장소은 외 1명, (2014), pp. 63-88.

73) 이병준 외 1명, (2014), pp. 153-177.

과 도구를 배울 수 있고 자연스러운 공동체를 형성 및 확장하는 전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 역시 새로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체계 안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거나 또 다른 활동체계로 확장함을 보여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노인학습자들 역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추이가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들의 평생교육과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등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요인, 학습동아리 참여 노인에 관한 연구,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관 요인, 노인 동아리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동아리의 의례적 학습과정 연구 등에서 노인학습자들은 성인학습자들과 유사하게 학습동아리 교육을 통해 주체성을 획득하고 이 주체성은 자기만족과 자신감, 삶의 의미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선행연구들은 학습동아리의 참여 여부, 동기, 지속 요인 등을 다루어 참여 노인의 학습경험과정에 관한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을 설명해주고 학습 환경과 교수 설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습동아리는 공식적으로 체계화되어있지 않으며, 형성과 유지, 발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 평생학습을 위한 기관 중 노인복지관은 시설과 설비, 인력 등의 면에서 학습을 위한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구조화되고 특수한 전문적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한정란은 기관별 노인교육의 적합성 설문 조사를 통해 노인교육의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노인복지관을 가장 선호됨을 제시하였으며 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각종 행사, 지역단체와의 연결고리 역할 등의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표 9> 기관유형별 노인교육기관의 적합성 : 중년층<sup>74)</sup>

기관 유형	전혀 부적합	부적합	적합	매우 적합	평균(sd)
복지관	4(0.6)	23(3.2)	471(65.4)	222(30.8)	3.27(.54)
노인교실	10(1.4)	50(7.1)	477(68.1)	163(23.3)	3.13(.59)
관공서	16(2.4)	171(25.6)	413(61.7)	69(10.3)	2.80(.64)
지역교육문화시설	14(2.1)	125(18.4)	446(65.8)	93(13.7)	2.91(.63)
종교기관의 노인학교	53(7.7)	205(29.9)	322(47.0)	105(15.3)	2.70(.82)
경로당	60(9.0)	272(40.7)	289(43.4)	47(7.0)	2.49(.76)
대학의 평생교육원	34(5.0)	235(34.7)	348(51.4)	60(8.9)	2.64(.71)
민간기관	49(7.3)	267(40.0)	321(48.1)	30(4.5)	2.50(.70)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61(9.2)	307(46.2)	272(40.9)	25(3.8)	2.39(.71)
기타	2(7.7)	12(46.2)	9(34.6)	3(11.5)	2.50(.81)

### 3.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1986년 미국 노년사회학회가 처음으로 제시하여 이후 부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1990년대부터 생물학, 사회과학, 의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노화의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성공적 노화는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것을 의미한다(Row & Kahn, 1998).

우리나라는 빠른 인구의 급증과 수명연장으로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최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74) 한정란(2008)은 기관별 노인교육의 적합성 설문 조사를 통해 미래의 노년층인 중년층(2014. 기준 46세~67세 대상으로 조사되었음.)이 가장 적합한 노인교육기관으로 복지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대와 50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성공적 노화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 개발(An,Kang, & Kim, 2009; Kim, D. B., 2008)도 이루어졌다.<sup>75)</sup>

가현수의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의 인식과 수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 결과를 제시했다.

첫째, 성공적 노화 수준의 일상의 안녕은 60대,70대가 80대 이상보다 높으며, 고졸이상이 초졸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교가 무교, 기타 종교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높았다.

둘째, 심리사회적 안녕은 60대가 80대 이상보다, 고졸이상과 중졸이 초졸 미만보다, 불교와 기독교가 무교, 기타 종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수입이 높을 경우 성공적 노화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더 높았으며, 부부동거와 자녀동거가 독거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상, 중졸, 초졸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인 경우가 농어촌인 경우 보다,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 기술, 전문직인 경우가 농축산업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중,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성공적 노화 수준의 문항 간 상관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 인식과 성공적 노화 수준의 심리사회적 안녕이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화 수준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노인들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달성을 성공적 노화라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현재 성공적 노화 수준이 낮다는 것은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인교육과 노인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

75) 박상연 외 3명, (2013), pp. 43-50.

따라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올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 현장 및 정책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일상생활에서는 우울이, 심리사회적으로는 수입이, 자기효능감에는 우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성공적 노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일상적인 안녕감에 삶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심리사회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자기효능적 측면에서는 만족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sup>76)</sup>

전보영은 노인들의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산적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와 건강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생산적 활동 요인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하위영역 중 ‘자율적 삶’이 가장 높았고 ‘자기완성지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가사활동수준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사회활동수준은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60대가 70대보다 사회활동수준이 낮았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생산적 활동 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공적 노화는 주관적 건강, 사회적 관계, 가족지지, 영적 안녕, 사회활동수준, 전체 생산적 활동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매월 의료시설 이용횟수, 우울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생산적 활동 수준별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생산적 활동 수준대상자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영적 안녕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중생산적 활동 수준대상자에서는 배우자 유무, 사회적 관계, 영적 안녕

---

76) 가현수, (2013), pp. 69-75.

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쳤다.

고생산적 활동대상자에서는 가족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었다. 생산적 활동 수준별로 구분하지 않은 전체 대상자에서는 우울감이 성공적 노화에 부(-)적 영향을, 가족지지와 영적 안녕이 성공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보영은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생산적 활동 수준이 낮은 것에 근거할 때 노인의 생산적 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 중 홀로 사는 노인의 가사활동에 대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가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령자의 경우 위생, 영양 상태를 위해 가사활동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시간과 에너지가 경제활동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에게 생산적 활동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노인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7)</sup>

박상연은 간호학적 관점에서 노인의 역할 수행 및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할수행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 가족형태, 성별, 용돈정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sup>78)</sup>

---

77) 전보영, (2012), pp. 69-75.

78) 박상연 외 3명(2013), 전게서, pp. 43-50.

여미옥은 노인의 사회참여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두 변수 간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참여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참여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실천에서는 노인에게 대한 비공식적 관계망의 사회적 지지 기능 강화,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연령별로 적합한 사회참여 지원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노년기 소득보장제도의 강화,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 노인 사회참여 전담 조직 설치 등과 같은 노인복지의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sup>79)</sup>

정순화는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련성 탐색’에서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일반적 수준을 알아보고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적으로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으며 종교적 영성 수준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80대 이상 집단이 70대보다 높음을 제시하였다.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모두 성공적 노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실존적 영성은 인구학적 배경 및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제한 후에도 성공적 노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한다.

---

79) 여미옥, (2013), pp. 66-70.

따라서 노인 삶의 질의 향상과 성공적 노화를 위해 물질적 지원 뿐 아니라 영성 측면, 특히 실존적 영성을 포함하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sup>80)</sup>

이창수는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모델에 있어서 신체 및 신체활동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며, 규칙적 신체 활동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노인들의 신체활동 중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체활동임이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고 생산적이며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가 규칙적 활동과 함께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하지만,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의 정의에 대한 의미의 해석은 질병 및 장애의 부재,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노화로 인한 질병 및 장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오는 한계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사회적인 부분을 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며, 성공적 노화의 정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양적인 부분에서의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질적인 부분에서의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적 노화의 정의에 대한 방향 설정은 연구의 계획 및 설계를 통한 정책들이 삶의 과정에서 추구되는 웰빙, 건강증진, 그리고 유지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향후 연구들은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용한 혁명 즉 노인들의 다양성을 포함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이러한 혁명의 일부분이며, 성공적 노화라는 부분에서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야 하며, 연구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sup>81)</sup>

---

80) 정순화 외 1명(2013), 전계서, pp. 59-79.

### 제3장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 제1절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여가 시설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노인 여가 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으로 64,983개<sup>82)</sup>의 여가 시설이 있다.

<표10>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2013.12.31.기준)

(단위: 개소 명)

종류	시설	2013	2012	2011	2010	2009
		시설수	시설수	시설수	시설수	시설수
	소 계	64,983	64,077	63,375	62,469	61,065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319	300	281	259	237
	경로당	63,251	62,442	61,537	60,737	59,543
	노인교실	1,413	1,335	1,557	1,464	1,280
	노인휴양소				9	5

그 중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

81) 이창수 외 2명, (2013), pp. 1-11.

82) 보건복지부, (2014), www.mw.go.kr

이 많이 배치되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복지관은 급진적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인의 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은 인천지역에서 1971년 노인복지회관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이후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인 정의가 마련되었다. 1989년에 서울시에 최초로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되며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5차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 전환되었다. 노인을 위한 여가 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나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교육, 재활, 건강, 취미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로 정의되어진다. 즉, 노인종합복지관은 단순한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종합복지센터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교육, 재활, 건강, 취미, 경제, 봉사, 문화 활동, 종교, 특별행사 등의 분야로 이루어지며 각 유형별로 적게는 3-4개, 많게는 15개 내외의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거주 노인 중 약 38,000명 정도가 복지관에 등록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11.10.31. 기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어디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45.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로 17.9%, 종교기

관 15.7%, 사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또는 사설학원 5.0%, 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 2.9%, 문화예술회관·문화의집·문화원·청소년회관·여자회관 3.0%, 대한노인회 2.3%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일수는 주 2.5일이며 만족도가 82.8%로 매우 높은 편이다.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프로그램이 좋다는 점이 가장 많아 38.8%이며 다음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가 22.4%, 비슷한 노인과의 만나는 것이 좋아서가 14.3%,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가 12.0%, 시설이 좋아서가 9.7%였다.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가장 높아 57.9%이며 다음이 친목도모로 16.9%, 식사서비스 12.8%, 건강관련서비스 5.4% 등이었다.<sup>83)</sup>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2010.12.31. 기준 259개가 있으며, 경로당에 비하여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노인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평생교육에서 찾고 있으며, 교육은 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부터 벗어나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변화의 중심에서 거듭날 수 있게 만들고 고령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이끄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생교육기관의 증가 및 프로그램 증가에 비해 실제로 노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sup>84)</sup> 2011년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은 8.8%에 불과했다.

그러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24.4%로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즉, 평생교육기관의 증가 및 프로그

---

83) 보건복지부, (2011), p. 8.

84) 최상오(2011), 전계서, pp. 77-78.

램의 증가에 비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는 매우 낮으므로 이들을 학습의 현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이용 이유는 프로그램이용이 57.9%였으며, 이를 통한 만족과 시간의 의미있는 사용이 주요 목적이었다. 친목도모는 16.9%에 불과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이 단순한 친목도모에 이용이유가 집중되어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즉,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 이유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38.8%로 절대적이었으며 다음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22.4%, 비슷한 노인과 만나는 것이 좋아서 14.3%,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12.0%, 시설이 좋아서 9.7%이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노인들은 미이용 이유로 다양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거리와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물리적 불편함을 언급한 비율이 31.0%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로당의 경우 3.2%인 것에 비하여 큰 차이를 갖고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개인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들의 경우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5)</sup>

그러나 노인들의 복지관 이용률은 2010년 7%에 불과했으며 2011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8.8%에 그쳤고<sup>86)</sup>, 고학력자 세대인 7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55세~63세)가 정년 퇴임, 은퇴 등을 통해 노인세대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어 복지관 이용률 역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질 것이며, 유입되는 세대 분석을 통해 복지관 운영도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1)에 의하면 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에는 70~74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에 응답한 경

---

85) 문화체육관광부(2012), p. 45.

86) 보건복지부, (2011), p. 511.

우도 13.3%가량 되었다.<sup>87)</sup> 즉 통상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노인의 연령 65세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80세 이상을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노인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연령층에서 노인을 75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노인교육에는 다양한 분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은 개인의 자각에 의한 판단이나 연령·사회적 역할·기능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고령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에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규정되는데, 생물학적으로는 퇴화기에 진입하고, 심리학적으로는 정신기능이 저하되고, 성격에 변화가 오며, 사회학적으로는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는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sup>88)</sup>

이에 노인세대가 교육의 장으로써 가장 선호하고 있는 복지관의 교육적 정책과 변화가 시급하다. 또한 국내 노인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측정과 전문성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표11>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률 및 교육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향후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14.7%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85.3%는 희망하지 않고 있다. 동부지역,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 노인부부가구,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취업 및 신체적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 참가희망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빈도는 주 2~3회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주 1회, 주 4회 이상 12.7%, 월 1회 2.1% 등의 순이다.

<표12>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률 및 교

---

87) 상계서, p. 605.

88) 서병진, (2008), p. 285.

육 참여 빈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이 향후 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기관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47.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로 27.6%, 종교기관 8.4%, 사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또는 사설학원 4.4%, 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 3.3%, 대한노인회 2.6%, 문화예술회관/문화의집/문화원/청소년회관/여자회관 2.5% 등으로 나타났다.

<표13> 에서와 같이 노인들은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건강관리·운동 관련 교육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양 교육이 18.1%, 정보화교육 17.6%, 기타 5.2% 등의 순으로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표14> 에서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보면,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40.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25.5%, 건강이 안 좋아서 17.2%, 시간이 없어서 8.3%, 참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2.5%,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2.0% 등의 순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편이다.<sup>89)</sup>

---

89) 보건복지부, (2011), p. 406.

<표11>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을 및 교육 참여 빈도<sup>90)</sup>

특성	평생교육 참여 희망률	향후 평생 교육 참여 빈도 <sup>2)</sup>						계(명)
		주4회 이상	주2-3 회	주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sup>1)</sup>	14.7	12.7	53.2	30.3	1.4	2.1	0.4	100.0(1,544)
지역								
동부	16.8	13.0	54.1	29.6	1.0	1.8	0.5	100.0(1,204)
읍·면부	10.1	11.7	49.9	32.6	2.6	3.2	0.0	100.0( 341)
성								
남자	13.7	14.4	55.0	26.0	1.8	2.7	0.2	100.0( 626)
여자	15.3	11.5	51.8	33.2	1.2	1.7	0.5	100.0( 920)
연령								
65-69세	20.4	12.1	60.2	23.2	1.7	2.8	0.0	100.0( 643)
70-74세	16.7	10.2	55.3	32.3	0.9	1.3	0.0	100.0( 539)
75-79세	11.0	19.2	37.0	39.6	1.5	0.8	1.9	100.0( 265)
80-84세	6.9	12.5	40.0	40.0	2.5	3.8	1.3	100.0( 80)
85세 이상	2.9	10.5	36.8	42.1	0.0	10.5	0.0	100.0( 1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5.5	12.3	55.8	28.1	1.3	2.1	0.4	100.0( 1,105)
배우자 없음	12.9	13.9	46.4	35.5	1.8	2.0	0.5	100.0( 440)
가구형태								
노인독거	13.8	14.9	43.1	37.2	2.1	2.1	0.7	100.0( 288)
노인부부	14.9	10.9	55.8	29.8	1.1	1.8	0.5	100.0( 761)
자녀동거	14.7	15.0	54.4	27.4	1.7	1.4	0.0	100.0( 419)
기타	15.6	9.2	57.9	25.0	0.0	7.9	0.0	100.0( 7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5	12.5	34.4	50.0	3.1	0.0	0.0	100.0( 64)
무학(글자해독)	11.8	13.6	47.7	32.9	2.7	3.1	0.0	100.0( 258)
초등학교	12.2	12.3	52.0	33.6	0.2	1.3	0.7	100.0( 456)
중·고등학교	19.9	11.7	60.3	23.8	2.2	2.0	0.0	100.0( 546)
전문대학 이상	30.1	15.3	49.5	30.6	0.0	3.2	1.4	100.0( 222)
현 취업상태								
취업중	13.8	11.0	52.0	32.1	2.0	2.2	0.6	100.0( 492)
미취업	15.1	13.6	53.7	29.4	1.0	2.0	0.3	100.0( 1,05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5	9.0	50.2	35.7	1.4	2.7	0.9	100.0( 221)
제2오분위	12.4	12.9	48.3	36.1	1.9	0.8	0.0	100.0( 263)
제3오분위	14.8	11.9	55.8	30.0	0.0	2.3	0.0	100.0( 310)
제4오분위	15.5	11.9	56.5	26.4	1.5	3.0	0.9	100.0( 329)
제5오분위	20.1	15.9	53.2	27.1	1.9	1.7	0.2	100.0( 42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9	12.8	52.6	30.4	1.5	2.2	0.4	100.0( 1,440)
제한 있음	7.2	10.5	60.0	28.6	1.0	0.0	0.0	100.0( 10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함.  
 2)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1,54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90) 상계서, p. 407.

<표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sup>91)</sup>

특성	노인 복지 관	대한 노인 회	종교 기관	대학 (교) 부설	사군 구 동·읍 면	문화 예술 회관 등	시설 문화 센터· 학원	기타 <sup>2)</sup>	계(명)
전체 <sup>1)</sup>	47.3	2.6	8.4	3.3	27.6	2.5	4.4	3.9	100.0(1,544)
지역									
동부	45.6	2.2	9.0	3.7	28.3	2.6	4.1	4.5	100.0(1,202)
읍·면부	53.7	3.8	6.2	1.8	25.4	2.1	5.6	1.5	100.0(339)
성									
남자	44.2	3.4	5.1	5.9	29.1	3.4	4.8	4.2	100.0(625)
여자	49.5	2.1	10.6	1.5	26.6	2.0	4.1	3.7	100.0(918)
연령									
65-69세	45.3	2.0	4.4	3.3	33.6	3.1	4.4	4.0	100.0(643)
70-74세	49.4	3.3	8.9	4.6	25.2	1.9	4.1	2.6	100.0(540)
75-79세	45.4	2.7	12.6	1.1	21.8	2.7	6.5	7.3	100.0(262)
80-84세	55.7	2.5	19.0	2.5	19.0	0.0	0.0	1.3	100.0(79)
85세 이상	52.9	5.9	23.5	0.0	17.6	0.0	0.0	0.0	100.0(1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7.4	2.4	6.1	4.1	28.5	2.9	4.9	3.7	100.0(1,105)
배우자 없음	47.3	3.0	14.2	1.4	25.3	1.6	3.2	4.1	100.0(438)
가구형태									
노인독거	43.8	1.7	14.2	2.1	27.4	1.4	4.5	4.8	100.0(288)
노인부부	49.7	2.5	4.7	3.5	29.5	1.7	5.0	3.4	100.0(763)
자녀동거	48.0	3.6	11.3	3.1	24.0	3.8	2.8	3.4	100.0(417)
기타	35.5	1.3	6.6	6.6	30.3	6.6	6.6	6.6	100.0(7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1.9	0.0	7.9	0.0	27.0	1.6	0.0	1.6	100.0(63)
무학(글자해독)	58.0	3.9	12.1	0.8	17.9	1.2	3.1	3.1	100.0(257)
초등학교	46.4	3.5	10.3	1.1	28.4	1.3	3.7	5.3	100.0(457)
중·고등학교	48.5	2.6	6.0	3.3	28.0	3.5	4.0	4.0	100.0(546)
전문대학 이상	30.0	0.0	5.9	11.8	36.4	4.5	9.1	2.3	100.0(220)
현 취업상태									
취업중	50.5	3.4	5.7	4.1	28.4	2.2	3.9	1.8	100.0(493)
미취업	45.8	2.2	9.6	3.0	27.2	2.6	4.8	4.8	100.0(1,05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2	0.9	12.2	0.5	21.2	1.4	5.4	5.4	100.0(222)
제2오분위	50.4	3.1	12.2	0.4	29.0	0.0	1.1	3.8	100.0(262)
제3오분위	48.4	3.5	5.5	6.5	27.7	1.9	3.5	2.9	100.0(310)
제4오분위	53.4	2.4	4.3	2.1	28.0	0.9	4.0	4.9	100.0(328)
제5오분위	37.1	2.6	9.3	5.0	29.5	6.2	6.9	3.3	100.0(420)
기능상태									
제한 없음	46.9	2.8	8.3	3.3	27.7	2.5	4.7	3.8	100.0(1,440)
제한 있음	52.9	1.0	9.6	2.9	26.0	2.9	0.0	4.8	100.0(10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1,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경로당이 포함됨

91) 보건복지부, (2011), p. 408.

<표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sup>92)</sup>

특성	건강관리/운동	여가 취미	일반교양	정보화	기타 <sup>2)</sup>	계(명)
전체 <sup>1)</sup>	19.9	39.2	18.1	17.6	5.2	100.0(1,544)
지역						
동부	20.0	39.2	17.6	17.5	5.7	100.0(1,203)
읍·면부	19.6	38.9	19.9	18.1	3.5	100.0(342)
성						
남자	13.9	34.9	18.4	27.2	5.4	100.0(624)
여자	23.9	42.0	18.0	11.1	5.0	100.0(919)
연령						
65-69세	19.9	38.2	18.7	19.6	3.6	100.0(642)
70-74세	19.6	36.8	17.0	18.1	8.5	100.0(541)
75-79세	21.3	44.1	18.6	12.5	3.4	100.0(263)
80-84세	16.5	49.4	17.7	13.9	2.5	100.0(79)
85세 이상	29.4	29.4	23.5	17.6	0.0	100.0(1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5	39.0	17.1	19.9	5.5	100.0(1,105)
배우자 없음	23.7	39.4	20.7	11.8	4.3	100.0(439)
가구형태						
노인독거	23.7	38.3	21.6	11.8	4.4	100.0(287)
노인부부	19.2	38.2	16.9	20.9	4.9	100.0(762)
자녀동거	20.3	41.6	16.5	15.3	6.2	100.0(418)
기타	11.7	37.7	24.7	19.5	6.5	100.0(7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9.0	35.5	30.6	1.6	3.2	100.0(62)
무학(글자해독)	22.5	37.2	23.6	9.7	7.0	100.0(258)
초등학교	27.6	41.4	10.9	16.4	3.7	100.0(457)
중·고등학교	15.6	39.3	15.0	25.7	4.4	100.0(545)
전문대학 이상	9.0	37.4	30.6	14.0	9.0	100.0(222)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3	39.9	15.7	22.0	4.1	100.0(491)
미취업	20.6	38.8	19.3	15.6	5.7	100.0(1,052)
연가구조소득						
제1오분위	22.2	42.5	19.0	10.0	6.3	100.0(221)
제2오분위	28.4	33.3	15.2	18.6	4.5	100.0(264)
제3오분위	18.3	37.0	17.7	21.2	5.8	100.0(311)
제4오분위	18.8	40.1	19.1	18.2	3.6	100.0(329)
제5오분위	15.5	41.4	19.3	18.1	5.7	100.0(420)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2	38.9	18.4	17.1	5.4	100.0(1,439)
제한 있음	17.1	42.9	13.3	24.8	1.9	100.0(10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1,5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자원봉사자 교육, 취업 및 직업교육, 노후준비 교육,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포함됨.

92) 보건복지부, (2011), p. 409.

<표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이유93)

특성	시간 이없 어서	건강 이 안 좋아 서	본인 이 원치 않아 서	필요 성못 느껴	참가 비용 부담	심리 적 부담 감	교육 장소 멀어 서	교육 장소 몰라 서	적당 한 프로 그램 없어 서	기타	계(명)
전체1)	8.3	17.2	40.9	25.5	2.5	2.0	1.6	0.3	1.7	0.1	100.0(8,972)
지역											
동부	7.6	17.6	40.9	25.4	3.0	2.2	0.8	0.2	2.1	0.1	100.0(5,972)
읍·면·부 성	9.5	16.5	40.9	25.6	1.5	1.6	3.0	0.4	1.0	0.0	100.0(3,046)
남자	9.5	13.8	41.4	26.7	1.9	2.1	1.2	0.2	3.1	0.0	100.0(3,915)
여자	7.3	19.9	40.5	24.5	2.9	1.9	1.8	0.3	0.6	0.1	100.0(5,057)
연령											
65-69세	14.3	12.1	41.2	23.2	2.2	2.0	1.6	0.4	2.9	0.1	100.0(2,503)
70-74세	8.5	15.1	41.5	25.8	3.2	2.2	1.6	0.1	1.8	0.1	100.0(2,677)
75-79세	6.0	20.7	40.8	24.9	2.6	1.9	1.6	0.3	1.1	0.1	100.0(2,119)
80-84세	2.1	23.0	41.0	27.2	2.0	2.0	1.9	0.2	0.7	0.0	100.0(1,076)
85세 이상	0.5	26.0	37.8	32.2	0.8	0.8	1.0	0.3	0.5	0.0	100.0(596)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0.0	15.5	41.6	24.9	2.1	2.0	1.3	0.3	2.2	0.1	100.0(6,002)
배우자 없음	4.8	20.7	39.7	26.6	3.2	1.9	2.0	0.3	0.8	0.1	100.0(2,969)
가구형태											
노인독거	4.7	22.1	38.0	26.0	3.5	2.0	2.5	0.4	0.7	0.0	100.0(1,793)
노인부부	9.5	15.4	42.0	25.3	2.0	1.7	1.5	0.3	2.1	0.1	100.0(4,351)
자녀동거	8.7	17.3	40.6	25.7	2.4	2.4	0.8	0.2	1.9	0.1	100.0(2,418)
기타	8.5	14.8	43.9	23.1	3.9	2.4	1.9	0.0	1.5	0.0	100.0(412)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1	19.8	40.4	29.5	2.0	1.9	1.8	0.3	0.3	0.0	100.0(1,080)
무학(글자해독)	5.8	21.9	41.4	23.2	3.2	1.9	1.9	0.4	0.2	0.0	100.0(1,918)
초등학교	9.1	17.1	41.3	24.5	2.7	2.1	1.7	0.3	1.0	0.2	100.0(3,280)
중·고등학교	11.4	13.5	41.1	25.6	2.2	1.6	1.3	0.2	3.1	0.0	100.0(2,184)
전문대학 이상	7.6	11.2	37.6	30.6	1.2	2.7	0.0	0.0	9.0	0.0	100.0(51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9.1	6.6	41.7	25.4	2.0	1.5	2.0	0.2	1.6	0.0	100.0(3,069)
미취업	2.7	22.8	40.5	25.5	2.8	2.2	1.4	0.3	1.8	0.1	100.0(5,9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4	22.6	40.0	24.9	4.3	2.4	1.5	0.3	1.5	0.0	100.0(1,890)
제2오분위	4.8	18.9	41.4	27.1	2.7	1.8	1.9	0.3	1.0	0.1	100.0(1,849)
제3오분위	10.2	16.6	39.8	25.5	2.3	2.1	2.1	0.4	1.0	0.0	100.0(1,788)
제4오분위	14.3	11.6	42.7	23.8	1.9	1.8	1.2	0.2	2.2	0.2	100.0(1,781)
제5오분위	10.2	16.0	40.7	25.9	1.0	1.8	1.0	0.2	3.1	0.1	100.0(1,665)
기능상태											
제한 없음	9.5	12.7	42.7	26.5	2.5	2.1	1.6	0.3	2.0	0.1	100.0(7,614)
제한 있음	1.1	42.9	31.3	19.4	2.3	1.2	1.2	0.3	0.4	0.0	100.0(1,359)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8,9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자 25명을 제외함.

93) 보건복지부, (2011), p. 410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노인 뿐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교육 참가의사를 밝힌 중년층은 98%에 육박하였으며,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으로써 노인복지관을 꼽았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재원의 조달체계적인 거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 다양성 저하, 종류의 획일화, 편중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인들과 중장년층 모두가 교육에 있어 강의와 견학, 실습 등의 참여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을 조사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견학과 실습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수용만큼이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 체험 형태로 교육받고 싶은 노인들의 욕구 역시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노인들은 각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과 맞춤형 체계가 필요하며, 지식과 학식의 높은 추구보다는 점진적 자기 계발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노인들의 세대별 교육 경험 차이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방식에 대한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sup>94)</sup>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세대가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주체성을 길러나가며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인들의 교육 참여와 교육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문성이란, 강의 내용에 대한 수준 평가가 아니라 교수 및 학습자 위주의 학습 체계를 포함한다.

즉,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인학습자 양성에 대한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을 통한 노인들의 주체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성공적 노화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94) 한정란 외, (2011), pp. 121-149.

<표15> 노인들의 선호 교육방법: 중년층 vs 노년층 vs 전문가

교육방법	중년층 (40-50대)	노년층 (60대 이상)	전문가
1)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113(16.1)	91(11.8)	5(8.3)
2) 강의를 통한 교육	228(32.6)	449(58.2)	18(30.0)
3) 견학, 실습 등 참여를 통한 교육	292(41.7)	153(19.8)	28(46.7)
4)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한 교육	53(7.6)	38(4.9)	9(15.0)
5) 인터넷(온라인)을 통한 교육	9(1.3)	13(1.7)	----
6) 혼자서(자기 스스로)하는 학습	5(0.7)	28(3.6)	----

안은경은 평생교육프로그램 비참여요인을 문제로 다룬 ‘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교육에 적합한 수행기관에 대해 노인복지관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향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하였다(응답자의 75%).

개인의 성향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흥미가 부족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적 장애(교육기관의 위치, 참여방법, 프로그램 종류 등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비참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학력수준, 건강상태에 따른 프로그램의 세분화와 홍보 방법 및 인식개선,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sup>95)</sup>

한정란은 노인복지관이 2011년 현재 42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육의 가장 큰 문제

95) 안은경, (2012), pp. 77-80.

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sup>96)</sup>

성공적 노화를 돕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은 참여자의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와 흥미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보급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운영 실태를 학습자 중심의 기획과정위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공적 노화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으로 노인학습동아리를 다루고,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써 학습동아리 운영을 검토하고자 한다.

---

96) 한정란 외(2011), 전계서, pp. 121-149.

## 제2절 노인학습동아리의 현황

노인들은 복지관 내외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습의 보충을 위한 모임도 포함하고 있다. 동아리는 친목, 취미 등, 다양한 범주의 학습을 목적으로 지역과 사회,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5)과 교육과학기술부(2011)분류기준을 근간으로 김영민(2013)이 구분한 노인 동아리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표16> 동아리 유형 분류

구분	활동내용별	공식성	조직화방식
분류 기준	공유하는 활동의 내용	공공기관(복지관)과 의 관계에서 인정여부	동아리를 결성하는 주체
유형	①문화예술활동 ②학술활동 ③스포츠활동 ④취미오락활동 ⑤종교활동 ⑥사회봉사활동 ⑦실습노작활동	·공식동아리 ·비공식동아리 또는 ·인준동아리 ·비인준동아리	·노인주도동아리 ·강사주도동아리 ·기관주도동아리

현대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접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적 접근에서도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확장하기 위하여 학습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학습동아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학습동아리가 공동체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학습동아리에 참여하여 활동함으로써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고 노년의 삶을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생활세계를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동아리 활동이 지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sup>97)</sup>

그러나 전기, 후기 노인세대는 일반적으로 학습동아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노인교육프로그램 역시 관련 교육 기관에 의해 정규 학습과정 위주로 개발되고 보급, 지원되어왔다. 이렇다 할 학습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노년인구의 증가로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학습동아리의 학습효과성과 참여자의 적응력, 사회성 발달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자발적인 모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 세대에서는 자발적 학습을 위한 모임 생성이 문화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 세대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학습동아리의 효과 측정, 동아리 활동 연구, 동아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학습동아리에 대한 교육학계의 연구가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 권고가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교육 복지 차원에서도 동아리 활동의 국가단위의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을 위한 교육기관인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평생학습관 등에서도 학습동아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환경적 정책 기반

---

97) 이병준 외 1명, 전거서, pp. 153-177.

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식 인준 동아리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제4장 연구 방법

### 제1절 연구 대상과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구 내 노인복지관 2곳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 있는 노인과 학습 동아리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설문지의 내용을 읽고 이해가 가능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복지관프로그램 참여 노인과 학습동아리 병행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하였다.

##### 1) 연구대상의 선정기준

-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노인 중 복지관프로그램 참여자
-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자
- 설문지의 내용을 읽고 이해가능한 자
-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2) 연구대상의 제외기준

-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
- 별도의 학습 목적을 가진 활동이 없는 자
-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무경험자

## 2. 조사 방법

프로그램의 실천적 운영을 위해 이용자 지향적 접근(User-oriented Approach)을 선호하여 선행연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은평구 내 노인복지관 2곳의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 학습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라 각 100여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총 226부의 설문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학습 동아리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성공적 노화 지수에 유의미한 학습동아리의 참여기간 및 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집단, 동아리 등을 다룬 ‘교육 분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공적 노화 등을 다룬 ‘사회복지학’의 선행연구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들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자가보고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고 연구자와 담당기관의 복지사가 연구 목적 및 취지를 전달하고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작성의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대상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 및 보조자가 설문 내용을 알려주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226부의 설문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설문 15부를 제외한 212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PASW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복지관프로그램 참여 노인과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동아리 활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복지관프로그램 참여 노인과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사회적 배경과 성공적 노화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습동아리 활동이 성공적 노화 관계에 유의미하다면, 연구대상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참여횟수 그리고 프로그램 소요비용에 따라 학습동아리 참여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2절 측정도구

### 1. 신뢰성과 타당도

설문도구로 김영민(2013) 「노인동아리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설문 도구를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국내 상황과 정서에 맞도록 개발된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안정신·김윤정·강인(2009)이 개발하였으며,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 척도 그리고 박경숙(2012) 자아통합감 척도를 분야 전문가와 지도교수 검증을 거쳐, 수정·보완한 후 재구성하였다.

척도는 4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자율적인 삶, 적극적인 인생참여, 자기효능감, 자아통합감으로 각 4문항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부여는 명명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는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 개발 당시 성공적 노화 범주들의 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들은 자율적인 삶의 신뢰도 계수는 .926, 적극적 인생참여의 신뢰도 계수는 .916, 자기효능감 신뢰도 계수는 .917, 자아통합감 신뢰도 계수는 .92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 전체에 대한 Cronbach's  $\alpha$ 분석 결과도 .881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 자율적인 삶, 적극적인 인생참여, 자기효능감, 자아통합감 등의 하위요인들 간에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학습동아리 참여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인들을 이론적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선별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문 7문항,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질문 5문항, 동아리 활동 특성에 관한 질문 7문항, 성공적 노화에 관한 질문 16문항으로 전체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요인들은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설문 구성요인

영역	조사도구	문항수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동거형태, 경제상태, 건강상태	7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	참여동기, 참여기간, 참여횟수, 참여비용, 프로그램 필요성 여부	5
동아리 활동 특성	동아리 참여여부, 비참여 이유, 동아리 참여동기, 동아리 참여기간, 학습동아리 참여횟수, 동아리 필요성, 생성 방식	7
성공적 노화 특성	자율적인 삶	16
	적극적인 인생참여	
	자기효능감	
	자아통합감	

## 제5장 연구결과와 분석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이유는 여가시간 활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5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1년~2년 미만과 2년~3년 미만이 그 뒤를 이었다. 주당 3~4회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비용은 거의 소요되지 않거나 소요된다 하더라도 5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의 학습자들은 노인학습동아리의 필요성 인식에 관해 상당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78.8%의 학습자들이 동아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9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의 비참여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고 동아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거나 적절한 동아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유사한 수치로 높았다. 그 외에도 건강상의 문제나 동아리 활동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 참여자와 학습동아리 참여자 양측 모두 강사의 지도가 학습동아리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노인세대의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며, 노인들의 특수성상 구성원들 스스로 동아리 생성을 활발히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습동아리의 구성원간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단계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강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

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동아리 참여 기간은 5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기간 또한 5년 이상이 가장 많아 동아리 참여가 프로그램의 참여 지속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아리 참여 횟수는 주 1회~2회, 주 3~4회, 거의 매일, 월 1회 순이었다.

학습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라 성공적 노화 차이 4가지 범주인 자율적인 삶, 적극적인 인생참여, 자기효능감, 자아통합감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인 인생참여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하위요인 4개 중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귀는 편이다.’, ‘나는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2개 요인이 유의수준 0.5를 초과하여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학습동아리 참여시 개인 친화력과 변화 적응은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아리 참여활동 시,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5년 이상 참여한 인원 78명 중 57명이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어, 5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73%가 학습동아리에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횟수와 프로그램 참여비용의 두 요인은 학습동아리를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제1절 연구결과와 분석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살펴보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표18> 연구대상자 구성

N=212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35	63.7
	여성	77	36.3
합계		212	100.0
연령	60~64세	10	4.7
	65~69세	38	17.9
	70~74세	70	33.0
	75~79세	39	18.4
	80~84세	34	16.0
	85~89세	21	9.9
합계		212	100.0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18>와 같다.

응답자 중 남성은 135명으로 63.7%, 여성은 77명으로 36.3%로 나타났다.

으며, 연령은 만 70세 이상 74세 이하가 33%(70명)로 가장 많았고, 만 60세 이상 64 이하와 만 75세 이상 79 이하가 각각 4.7%(10명), 18%(38명)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70대 이상이 전체 77%를 차지하였다.

<표19> 연구대상자 교육수준

N=212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교육수준	무학	9	4.20
	초졸	12	5.70
	중졸	23	10.80
	고졸	79	37.30
	전문대졸	12	5.70
	대졸이상	77	36.30
	합계	212	100.0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37.3%, 대졸이상 36.3%, 중학교 졸업 10.8%, 전문대학 졸업과 초등학교 졸업은 5.7%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학도 4.2%(9명)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의 79.3%(168명)를 차지하였다.

<표20> 연구대상자 종교

N=212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종교	기독교	82	38.68
	천주교	44	20.75
	불교	46	21.70
	무교	30	14.15
	기타	10	4.72
합계		212	100.0

연구대상자의 종교는 있다는 응답이 85.9%, 없다는 응답이 14.1%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는 경우 기독교 38.6%, 천주교 20.8%, 불교 21.7%, 기타 4.7%를 차지하였다.

<표21> 연구대상자 동거형태

N=212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동거형태	독거	59	27.83
	배우자	126	59.43
	자녀	24	11.32
	기타	3	1.42
합계		212	100.0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동거자에 대한 질문에는 배우자와 살고 있다(59.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론 독거(27.8%), 자녀와 함께(11.3%),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

<표22> 연구대상자 경제상태

N=212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경제상태	매우 어렵다	3	1.42
	어렵다	35	16.51
	보통이다	125	58.96
	좋다	44	20.75
	아주 좋다	5	2.36
합계		212	100.0

현재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59%로 가장 많았고, 좋다가 20.8%, 어렵다16.5%, 아주 좋다 2.4%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상태가 보통 이상인 비율은 82%를 차지하였다.

<표23> 연구대상자 건강상태

N=212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5	2.36
	건강하지 못하다	36	16.98
	보통이다	89	41.98
	건강하다	74	34.91
	매우 건강하다	8	3.77
합계		212	100.0

연구대상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42%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다가 34.9%, 건강하지 못하다 17%, 매우 건강하다 3.8%,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가 2.4%로 나타났다.

## 2.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살펴보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어떤 동기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43.4%,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33.5%, 건강관리를 위해서 11.3%,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9.4%, 기타 1.4순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5년 이상이 36.8%, 1년~2년 미만 23.6%, 2년~3년 미만 13.2%, 3년~5년 미만 12.7%, 6개월~1년 미만 7.6%, 6개월 미만 5.2%, 기타 0.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횟수는 주 3~4회 45.8%, 주 1회~2회 34%, 거의 매일 16.5%, 월 1회 2.4%,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한 달 평균 비용은 무료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5만원 미만이 39.6%, 5만원 이상이 7.1%, 기타 0.9%로 나타났다.

<표24>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

N=212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동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71	33.5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20	9.43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92	43.40
	건강관리를 위해서	24	11.32
	생각해보지 않음	2	0.94
	기타	3	1.42
합계		212	100.0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기간	6개월 미만	11	5.19
	6개월~1년 미만	16	7.55
	1년~2년 미만	50	23.58
	2년~3년 미만	28	13.21
	3년~5년 미만	27	12.74
	5년 이상	78	36.79
	기타	2	0.94
합계		212	100.0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횟수	거의 매일	35	16.51
	주 1회~2회	72	33.96
	주 3~4회	97	45.75
	월 1회	5	2.36
	기타	3	1.42
합계		212	100.0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비용	무료	111	52.36
	5만원 미만	84	39.62
	5만원 이상	15	7.08
	기타	2	0.94
합계		212	100.0

### 3. 동아리 활동 특성

동아리 활동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살펴보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복지관에 노인학습동아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63.2%(134명), 매우 필요하다가 15.6%(33명)으로 전체 78.8%(167명)가 필요하다 응답하였으며, 그 외 필요 없다가 8.9%, 생각해보지 않았다 11.8%로 답하였다.

◎ 참여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26.7%, 동아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와 적절한 동아리가 없어서가 각각 24.8, 28.7%, 건강이 안 좋아서 11.8%, 동아리 활동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 이 외 기타로 나타났다.

◎ 만약 학습동아리가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강사가 만들어주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가 57.5%, 프로그램의 부족한 학습을 위해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야된다가 28.3%으로 답하였다.

◎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기간은 5년 이상이 17%, 1년~2년 미만 11.8%, 2년~3년 미만과 3년~5년 미만이 각각 9%, 6개월~1년 미만 8.2%, 6개월 미만 8.2% 순으로 나타났다.

◎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횟수는 주 1회~2회 30%, 주 3~4회 28%, 거의 매일 20%, 월 1회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25> 동아리 활동 특성

N=212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동아리 필요여부	전혀 필요없다	1	0.47
	필요없다	19	8.96
	필요하다	134	63.21
	매우 필요하다	33	15.57
	생각해보지 않았다	25	11.79
합계		212	100.0
동아리 운영방식	강사가 만들어주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는 방식	122	57.55
	프로그램의 부족한 학습을 위해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참여하는 방식	60	28.30
	기타	30	14.15
합계		212	100.0

N=110

동아리 참여기간	6개월 미만	9	8.18
	6개월~1년 미만	9	8.18
	1년~2년 미만	13	11.82
	2년~3년 미만	10	9.09
	3년~5년 미만	10	9.09
	5년 이상	17	15.45
합계		110	38.18
동아리 참여횟수	거의 매일	22	20.00
	주 1회~2회	33	30.00
	주 3~4회	31	28.18
	월 1회	11	10.00
	기타	12	10.91
합계		110	100.0

N=101

동아리 불참여유	동아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25	24.75
	시간이 없어서	27	26.73
	건강이 안 좋아서	12	11.88
	적절한 동아리가 없어서	29	28.71
	활동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해서	5	4.95
	기타	3	2.97
합계		101	100.0

#### 4. 성공적 노화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학습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6> 성공적 노화 차이 T-검증

N=211(N=1, 무응답)

동아리참여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자율: 몸	있다	110	3.63	.844	2.393	.001***
	없다	101	3.31	1.093	2.367	
자율: 가정 역할	있다	110	3.89	.611	5.403	.000***
	없다	101	3.18	1.228	5.265	
자율: 스스로	있다	110	3.75	.719	4.089	.000***
	없다	101	3.22	1.154	4.013	
자율: 효율적	있다	110	3.79	.718	4.585	.000***
	없다	101	3.29	.876	4.547	
적극: 친구	있다	110	3.69	.714	12.541	.053
	없다	101	2.24	.961	12.386	
적극: 적응	있다	110	3.68	.801	12.124	.152
	없다	101	2.24	.929	12.047	

적극: 보람	있다	110	3.80	.632	3.208	.000***
	없다	101	3.48	.832	3.171	
적극:	있다	110	3.40	.815	5.219	.000***
모임역할	없다	101	2.69	1.138	5.148	
자기효능:	있다	110	3.55	.724	5.054	.012*
이루고	없다	101	2.93	1.051	4.977	
자기효능:	있다	110	3.83	.662	3.237	.000***
판단	없다	101	3.49	.867	3.200	
자기효능:	있다	110	3.73	.728	4.297	.000***
성장능력	없다	101	3.19	1.074	4.229	
자기효능:	있다	110	3.77	.645	4.362	.000***
목표달성	없다	101	3.24	1.097	4.272	
자아통합:	있다	110	3.96	.589	4.481	.000***
인생가치	없다	101	3.43	1.099	4.376	
자아통합:	있다	110	3.91	.711	3.824	.000***
늡음	없다	101	3.47	.965	3.775	
자아통합:	있다	110	3.98	.590	3.397	.000***
죽음부정	없다	101	3.64	.844	3.347	
자아통합:	있다	110	3.97	.627	4.260	.000***
자아만족	없다	101	3.48	1.035	4.176	

\*\*\*p<.001, \*\*p<.01, \*p<.05

학습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라 성공적 노화 차이 4가지 범주인 자율적인 삶, 적극적인 인생참여, 자기효능감, 자아통합감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인 인생참여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하위요인 4개 중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귀는 편이다.’, ‘나는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2개 요인이 유의수준 0.5를 초과하여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학습동아리 참여시 개인친화력과 변화 적응은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아리 활동이 성공적 노화 관계에 유의미함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참여횟수 그리고 프로그램 소요비용이 학습동아리 참여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7> 학습동아리 활동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베타	t값	유의 확률(P)	공차 한계
동아리 참여	(상수)	.146		-.918	.360	
	프로그램 참여기간	.019	.406	6.363	.000	.987
	프로그램 참여횟수	.038	.078	1.204	.230	.969
	프로그램 참여비용	.050	.011	.180	.858	.981
	R=.405, R <sup>2</sup> =.164, 수정된 R <sup>2</sup> =.152, F=13.636, P=.000, Durbin-Watson=.291					
동아리 비참여	(상수)	.297		7.431	.000	
	프로그램 참여기간	.040	-.413	-6.487	.000	.987
	프로그램 참여횟수	.077	-.038	-.597	.551	.969
	프로그램 참여비용	.102	-.009	-.145	.885	.981
	R=.411, R <sup>2</sup> =.169, 수정된 R <sup>2</sup> =.157, F=14.069, P=.000, Durbin-Watson=.324					

\*\*\*p<.001, \*\*p<.01, \*p<.05

학습동아리 참여활동 시,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미치는 영향은 t값이 6.363으로 나타나고, P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횟수와 프로그램 참여비용에 따른 t값은 각각 1.204와 .180, P값은 0.05를 초과하여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로 나타나 두 요인은 학습동아리를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3.63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a=.164으로 16.4%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291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학습동아리 비참여활동 시,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미치는 영향은 t값이 -6.487로 나타나고 P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횟수와 프로그램 참여비용에 따른 t값은 각각 -.597와 -.145, P값은 0.05를 초과하여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요인은 학습동아리를 비참여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4.06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a=.169으로 16.9%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32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습동아리 활동이 성공적 노화 관계에 유의미함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동아리 참여자의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8> 동아리 참여자의 성별

N=110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남	71	64.5	64.5	64.5
여	39	35.5	35.5	100.0
합계	110	100.0	100.0	

<표29> 동아리 참여자의 동거형태

N=110

현동거자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무효	1	.9	.9	.9
독거	20	18.2	18.2	19.1
배우자	72	65.4	65.4	84.5
자녀	17	15.5	15.5	100.0
합계	110	100.0	100.0	

<표30> 동아리 참여자의 연령대

N=110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무효	1	0.9	0.9	.9
60대	22	20.0	20.0	20.9
70대	59	53.6	53.6	74.5
80대	27	24.6	24.6	99.1
90이상	1	.9	.9	100.0
합계	110	100.0	100.0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결과를 보인 동아리 참여자는 남자가 64.5% 여자가 35.5%로 나타났다. 동아리 참여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65%로 가장 많았고, 혼자 사는 경우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8.2%, 15.2%였으며, 연령대는 70대가 5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80대와 60대가 24.6%, 20.0%로 그 뒤를 이었다.

동아리 참여자의 연령은 70대가 53.6%, 80대가 24.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표17], [표20]과 비교해볼 때, 프로그램참여자의 성별 및 동거 형태, 연령 등의 참여 비율에 따른 기초 데이터의 차이로 보여 진다.

<표31> 동아리 참여자의 최종학력

N=110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무효	1	.9	.9	.9
무학	1	.9	.9	1.8
초등졸	7	6.4	6.4	8.2
중등졸	9	8.2	8.2	16.4
고등졸	35	31.8	31.8	48.2
전문대졸	6	5.4	5.4	53.6
4년대졸	51	46.4	46.4	100.0
합계	110	100.0	100.0	

<표32> 동아리 참여자의 종교

N=110

종교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무효	1	.9	.9	.9
기독교	38	34.5	34.5	35.5
천주교	27	24.5	24.5	60.0
불교	29	26.4	26.4	86.4
없음	10	9.1	9.1	95.5
기타	5	4.5	4.5	100.0
합계	110	100.0	100.0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동아리 참여자들은 그 중 85% 이상이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다. 앞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종교가 나이 들에 따라 점점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65%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이 종교는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바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85%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좀 더 활동적이고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종교는 나이 들에 있어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표33> 동아리 참여자의 건강상태

N=110

건강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무효	1	.9	.9	.9
매우 나쁨	1	.9	.9	1.8
나쁨	10	9.1	9.1	10.9
보통	54	29.1	29.1	60.0
건강함	38	34.5	34.5	94.5
매우 건강함	6	5.5	5.5	100.0
합계	110	100.0	100.0	

동아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4.5%로 많았으며, “보통”과 “나쁨”이 각각 29.1%, 5.5%였다. 주관적 경제 만족도는 “보통”을 63.7%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좋다”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도 21.8%가 되었다.

<표34> 동아리 참여자의 주관적 경제 만족도

N=110

경제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무효	2	1.8	1.8	1.8
매우 어렵다	-	-	-	1.8
어렵다	11	10.0	10.0	11.8
보통	70	63.7	63.7	75.5
좋다	24	21.8	21.8	97.3
매우 좋다	3	2.7	2.7	100.0
합계	110	100.0	100.0	

동아리 참여자들은 주관적 경제 만족도에서 “보통”을 많이 선호했으며, “좋다”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도 21.8%가 되었다.

<표35> 동아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필요성

N=11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무효	1	.9	.9	.9
필요없다	-	-	-	.9
필요하다	65	59.1	59.1	60.0
매우필요하다	44	40.0	40.0	100.0
생각해보지않음.	-	-	-	100.0
합계	110	100.0	100.0	

동아리 참여자들은 복지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99.1%로 이견이 거의 없는 입장을 보였다.

<표36> 동아리 참여자의 학습동아리 필요성 인식

N=11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무효	2	1.8	1.8	1.8
필요없다	-	-	-	1.8
필요하다	87	79.1	79.1	80.9
매우필요하다	17	15.5	15.5	96.4
생각해보지않음.	4	3.6	3.6	100.0
합계	110	100.0	100.0	

노인학습동아리 참여자들은 학습동아리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 94.6%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37> 동아리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

N=110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무효	5	4.5	4.5	4.5
강사 지도	62	56.4	56.4	60.9
자율적 참여	37	33.6	33.6	94.5
생각해보지않음.	6	5.5	5.5	100.0
합계	110	100.0	100.0	

프로그램 참여자와 동아리 참여자 모두 학습동아리 운영 방식에 관하여는 강사 지도를 원하는 경우가 56.4%나 되었다.

## 제2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어나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다. 또한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노인의 특성 또한 다양화·분화되어지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세대의 노년층 유입으로 노인교육은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제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보장의 한계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 노인의 부양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 노년기의 만성 질환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확대 등이 그것이다.

즉, 출생률 저하와 맞물린 노인들의 은퇴 현상은 노동시장과 국가 재정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개인적 영역에서의 역할 상실 및 사회적 참여 축소, 고립감 등과도 연결되어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과거의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의 여가이용시설이 있으며 종교계 및 민간단체들도 다양한 노인대학, 평생학습관 등의 노인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노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노인 교육의 현장은 노인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은 효율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상태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노인들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평가와 개발,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

향은 물론, 학습동아리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연구를 진행 하였다. 설문 을 통한 가설 검증과 기존의 선행연구의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복지관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교육기관의 현장 운영자와 담당자들은 다양한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노인복지관의 학습자들은 노인학습동아리의 필요성에 대해 78.8%가 동아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아리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9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동아리 장기 참여자들은 보통 주 1-2 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에 5년 이상 참여하는 지속성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관에서의 학습동아리는 청소년과 성인들의 학습동아리만큼 활성화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습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의 지원 등을 통해 부담없이 노인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아리는 별도의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것이 개인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배정을 통한 노인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노인학습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노인학습동아리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학습동아리 개설과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노인학습자들의 동아리 비참여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많았으나, 동아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거나 적절한 동아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유사한 수치로 높았다. 그 외에도 건강상의 문제나 동아리 활동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인학습자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추가적 배움과 관계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개인적 학습욕구에 알맞은 동아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습동아리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평가

지표와 학습동아리 과정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경우, 복지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홍보수단을 통해 노인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있으나 학습동아리의 활동은 그렇지 못하다. 학습동아리가 프로그램에서 파생되어 공식적으로 생성된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몇몇 구성원이 모여 동아리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가입의 정보와 경로가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노인 세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운영자, 담당자, 또는 강사들은 적절한 수준의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경우와 학습동아리에도 함께 참여하는 경우, 양측 모두 학습동아리 운영에 강사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노인세대가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며, 노인의 특수성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동아리 생성을 활발히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습동아리의 구성원간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단계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강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노인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종교 및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육시설의 프로그램에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통합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교 및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육시설의 학습동아리는 그 특성 상 아직까지 활동이 미비하거나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며, 노인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차원에서 노인동아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동아리 활동 매뉴얼이나 활동 지원금 등의 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제6장 결론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제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보장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노인문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학자들은, 과거에 지속되어 왔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노인 교육을 통한 성공적 노화, 즉, 노인들의 교육을 통한 사회 기여와 재생산, 사회적응과 이를 통한 세대 간 갈등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노인평생교육을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인들의 평생교육참여는 단순한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계층간의 통합과 경제적 손실 회복, 사회적인 부가 가치를 가져온다. 노인들의 활동 증대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의료비 경감과 사회적 통합기능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노후 경제활동은 사회참여를 통한 능력발휘와 소득창출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 분석과 설문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평생학습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학습동아리에 대한 개념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교육학계에서 이미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에, 노인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근래에 들어 노인 학계에서 주목되는 시점에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서울시 은평구 관내 복지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학습동아리와 프로그램참여자 간의 성공적 노화 영향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국한하여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다. 학습위주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노인학습동아리의 구체적인 현황과 복지관 뿐만 아니라 민간 노인교육기관을 포함한 노인학습동아리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 노화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노인학습동아리를 통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현장의 노인학습동아리 운영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복지관의 노인학습동아리 뿐만 아니라 종교 및 민간 기관 등의 노인 학습동아리 형성과 운영에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학습동아리를 노인복지기관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기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고수현, 『노인복지론』, (과주, 양서원, 2013)
- 권중돈, 『노인복지론』, (과주, 학지사, 2013)
- 기영화, 『노인교육의 실제』, (과주, 학지사, 2007)
- 김남선, 『평생교육론』, (대구, 형설출판사, 2009)
- 박경실 [외]공저,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2013)
- 박광준 [외]공저,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과주, 양서원, 2010)
- 박인중,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2011)
- 배을규, 『성인교육의 실천적 기초』, (과주, 학지사, 2006)
- 서병진, 『사회복지실천현장론』, (서울, 솔바람, 2004)
- 서병진, 『New Guide 사회복지현장실습』, (서울, 솔바람, 2007)
- 서병진,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2008)
- 서병진, 『불교사회복지론』, (서울, 솔바람, 2010)
- 성낙돈·김창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서울, 청목, 2013)
- 안홍순, 『노인복지론』, (고양, 공동체, 2013)
- 오근재, 『퇴적공간』, (서울, 민음인, 2014)
- 유 경 [외]공저, 『노화와 심리』, (과주, 학지사, 2014)
- 윤소영, 『행복의 여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9.
- 이화정 [외]공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11)
- 정옥분, 『성공적 노화』,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자료집, 2008.
- 한승희,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과주, 학지사, 2009)
- 한정란, 『노인교육의 이해』, (과주, 학지사, 2007)

- 한정란 [외]공저, 『노인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사회  
복지가족부 정책과제보고서, 2008.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과주, 교육과  
학사, 2005)
- 허정무, 『노인교육학개론』, (서울, 양서원, 2007)

## 2. 학위논문

- 가현수,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인식과 수준간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2010)
- 권미진, 「노인의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경험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1)
- 김미예, 「학습동아리 활성화도가 학습공동체 구현에 미치는 영향」, 아주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3)
- 김영민, 「노인 동아리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2)
- 김영진,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  
\_인천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4)
- 김지영,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미래교육」,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8)
- 김지환, 「고령화 사회의 노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  
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0)
- 김효경, 「평생학습을 통한 노인의 주체화 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13)
- 김필레, 「평생교육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항공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2014)
- 서명환,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  
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1)

- 안은경, 「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장해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2)
- 양상남,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2)
- 여미옥,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3)
- 오애숙,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광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3)
- 장은하,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4)
- 전보영,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2)
- 정진, 「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3)
- 천후섬, 「노인 평생교육의 실태와 평생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4)
- 최상오, 「노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관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1)
- 한우식, 「학습동아리 참여 노인의 학습경험 과정과 지속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1)

### 3. 학술논문

- 기영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노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요인 정립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8권 제3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05.

- 김미령,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 김미혜 외,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한국노년학회, 2006.
- 김수현 외 1명, 「노년기 여가활동 참여와 성공적 노화 인식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5 No.4, 한국가족관계학회, 2011.
- 김연희,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40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3.
- 김인종, 『역사와 사회(HISTORY AND SOCIETY)』 제24권, 원광대학교 채문연구소(Chaemun institute), [1999].
- 김정진 외 1명, 「노인학습동아리가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한 사례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 제16권 제3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3.
- 김진한, 「고령화 사회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Andragogy Today』 제10권 제4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07.
- 노일경, 「고령화시대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직업과 인력개발」, 제14권 4호(통권60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 노길명, 「종교사회복지성격과 과제」, 「종교와 사회」 제1권 제1호, 한국종교사회학회, 2010.
- 문명자,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노인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의과학연구정보센터, 2012.
- 박상연 외 3명, 「노인의 역할활동과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간호학회지』 15권 제1호, 노인간호학회, 2013.
- 서병진, 「한국불교와 사회복지」, 『정토학연구』 제 19집, 정토학회, 2013.
- 오미경, 「성공적 노화와 사회적 관계」, 『뇌교육연구 특별호』 117,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연구소, 2011.
- 오세영, 「한국종교사회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과 과제」, 『원불교

- 사상과종교문화』 55,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 유수현, 「노인 여가시설의 여가 프로그램 실태 분석」, 『여가학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여가문화학회, 2005.
- 윤명희 외 1명, 「평생학습동아리 구성원의 지식공유 현상 및 특성 탐색」, 『Andragogy Today』 Vol.16 No.4, 한국성인교육학회, 2013.
- 은주희 외 1명,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참여동기, 교수실재감, 학습성과 간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13.
- 이기홍· 외 1명,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조사연구: 1)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Vol.11 No.2, 한국조사연구학회, 2010.
- 이부일 외 1명,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 연구』 5.1,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2009.
- 이병준 외 1명, 「G. Simmel의 사회적 공간담론 관점에서의 노인동아리 사례연구」, 『Andragogy Today』 제17권 제2호, 평생교육학회, 2014.
- 이병호 외 1명,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과정 추이(推移) 분석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발전 평생교육정책 사례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 연구』, Vol.5 No.3,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2009.
- 이석진 외 2명,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위논문 동향분석」, 『평생교육학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12.
- 이수림 외 1명, 「나이 듦과 지혜」, 『한국심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심리학회, 2007.
- 이수정,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인구교육’ 강좌의 구성과 운영 실태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학습자중심교육학회, 2011.

- 이지혜 외 1명, 「학습동아리활동에 나타난 학습역동」, 『평생교육학연구』 8.1, 평생교육학회, 2002.
- 이의용 외 1명,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만족이 노인의 우울정서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 이창수 외 2명,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 대한 비평과 향후 과제」, 『한국웰니스학회지』 제8권 제4호, 한국웰니스학회, 2013.
- 이충열, 「서울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종교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대」. 『영성과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지』 Vol.2013 No.3, 영성과 사회복지학회, [2013].
- 이혜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동아리 활동과 그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7.
- 임흥수 외 2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상담교육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2014.
- 장소은 외 1명, 「노인동아리의 의례적 학습과정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0.2, 평생교육학회, 2014.
- 정순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4, 한국노년학회, 2007.
- 정순돌 외 2명, 「노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3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1.
- 정순돌 외 2명,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 정순화 외 1명,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련성 탐색」, 『인간발달학회지』 제20권 제4호, 한국인간발달학회, 2013.
- 정옥분, 「성공적 노화」, 『학술심포지엄자료집』, 한국인간발달학회, 2008

- 조흥식, 『종교사회복지활동의 방향과 과제』,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제1회 심포지엄발표논문, 1998.
- 지희숙, 「공주대학교, 성인학습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평생학습사회』 제8권 제3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2012.
- 최영준,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 『한국성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3.
- 한우식·외 1명, 「노인학습동아리 참여노인들의 학습경험 과정」, 『평생교육·HRD 연구』 제6권 제3호,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 2010.
- 한정란 외, 「한국 노인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안」,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14권 제1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1.
- 한정란 외 3명, 「노인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과제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p. 2008.

#### ● 공공기관 조사 문헌 및 사이트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건강보험통계연보([www.nhis.or.kr](http://www.nhis.or.kr))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www.mcst.go.kr](http://www.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www.mcst.go.kr](http://www.mcst.go.kr))
- 보건복지부([www.mw.go.kr](http://www.mw.go.kr))
- 통계청([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www.aks.ac.kr/>)
- e-나라지표([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Abstract

### Study on Ways to Improve Lifelong Learning Programs at Senior Welfare Centers for Successful Aging

Min-ju, Lim

Graduate School of Buddhism

Dongg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ifelong learning programs and study groups offered at senior welfare centers, which serve a leading role in delivering continuous education in the aging society; to validate the hypothesis that lifelong learning courses run concomitantly with study groups are particularly effective for advancing the goal of successful aging; and to propose ways to improv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To verify the hypothesis, a survey was conducted on member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t two senior welfare centers located in Eunpyeong-gu, Seoul, Korea. The key finding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78.8% of learners at the welfare centers recognized the need for study groups, while the rate was higher at 99% among those who had actual experience participating in the study groups. A scarcity of available time, insufficient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the groups being offered, and a lack of groups in line with the interests

or needs of the respondents were cited in similarly high rates as factors precluding some of the people polled from being involved in study group activities. The study also found that, out of four commonly accepted components of successful aging, involvement in study group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ll of them, barring active engagement with life.

The results of the study support the view that continuous education programs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successful aging and tend to create great synergy when operated in tandem with study group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enhance programs for lifelong education in order to most effectively serve the elderly by promoting successful aging:

Firstly, experts and instructors working with seniors at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make the most of a variety of support systems available to promote and expand study group activities in their institutions. Secondly, there needs to be full support for follow-up studies on study groups as crucial components of successful continual learning for the elderly. Drawing on these studies,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offering of study groups in a wide range of areas. Strategic promotional efforts should also be enacted to induce engagement among the seniors. Thirdly,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needs of the senior population, an appropriate level of guidance from instructors or other experts should be provided up to the stage at which members of the groups are able to lead group activities in an independent and effective manner. Fourthly, systematic support from relevant organizations or bodies and integrated infrastructure are required to make it easier for senior learning facilities managed by religious and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senior welfare centers to incorporate study groups into their programs and foster the engagement of their members with those groups in the

long term. Finally, policies specifically designe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seniors engaging in study or other groups as part of their continuous learning experience should be developed at the government level.

It has been established by multiple studies that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ffect successful aging significantly.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hypothesis that study groups for seniors can have the effect of maximizing the impact of lifelong learning programs, with a view to exploring different ways to enhance how those groups are operated in the field. Ultimately, the author is confiden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establish a useful direction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senior study groups by religious and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welfare centers, recommending that study groups be actively adopted as part of learning programs offered by senior welfare institutions.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 석사과정 재학생 임민주입니다.

본 설문지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향후 프로그램의 질적 개발과 운영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되어진 설문지는 통계 처리되어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가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본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 서 병 진

연구자 : 임 민 주([prosumer1979@naver.com](mailto:prosumer1979@naver.com))

연락처 : 010-6707-0017



8. 어떤 동기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우기 위해  
 ②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③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해서  
 ④ 건강관리를 위해서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
9.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년-5년 미만 ⑥ 5년 이상
10.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주 1회~2회 ③ 주 3~4회 ④ 월 1회 ⑤ 기타( )
11.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데 소요되는 한 달 평균 비용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무료 ② 5만원 미만 ③ 5만원 이상
12. 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
13. 어르신께서는 학습동아리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14] ② 없다.[13-1로]
- 13-1. 참여하신 적이 없다고 대답하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① 동아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건강이 안 좋아서  
 ④ 적절한 동아리가 없어서  
 ⑤ 동아리 활동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⑥ 기타( )

14. 어르신께서는 어떤 동기로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우기 위해  
 ②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③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해서  
 ④ 건강관리를 위해서  
 ⑤ 친목도모를 위해서  
 ⑥ 기타( )
15. 학습동아리에 참여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년-5년 미만                      ⑥ 5년 이상
16. 참여하고 계신 학습동아리에 참여하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주 1회~2회    ③ 주 3~4회    ④ 월 1회    ⑤ 기타( )
17. 복지관의 노인학습동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
- 17-1. 만약 학습동아리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셨다면 필요한 동아리는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사가 만들어주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는 방식  
 ② 프로그램의 부족한 학습을 위해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참여하는 방식  
 ③ 기타 ( )

18. 다음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성공적 노화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자 율 적 인 삶	1	나는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정에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스스로 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주변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적 극 적 인	5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인 생 참 여	7	나는 시간을 보람있게 잘 보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나는 모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성공적 노화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자기 효 능 감	9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직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대부분 잘 기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자신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 아 통 합 감	13	인생은 의미 있고 살 가치가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늙었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죽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대체로 나는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